

21세기 사랑방, 동아시아를
견디는 사람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9



EAI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4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① 전선미
러일 관계 불화의 시작 오쓰 사건(大津事件)	31
_글로벌가든	② 정하민
난학의 종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젊은 시절	60
_테지마	③ 박예은
첨단기술과 미중 전략경쟁: 통합억지와 지능화전쟁	85
_사세보기지	④ 최정환
조선-일본 관계에 있어 대마도의 역할	98
_한일 교류박물관	⑤ 김유진
Li Hongzhang's Psyche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125
_Sino-Japanese Treaty Memorial Hall	⑥ 성종은

인공지능 시대 인태지역 질서 전망

139

_규슈 국립박물관

⑦ 이예린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전선미

푸단대학교

들어가며

1945 년 어느 여름, 일본 하늘아래 원자폭탄이 투하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그 날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렇다면 핵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만약 북한의 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21 세기형 민족상잔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비극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반세기도 훨씬 이전에 사용된 핵무기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역사적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절박한 이유이다.

본 답사보고서는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라는 초보적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2022 년 9 월 북한은 새로운 핵 무력 정책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사실 북한은 10 년전인 2013 년 상기 법령의 이전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핵보유 관련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2013 년 4 월 발표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관련법)」과 2022 년 9 월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정책법)」의 해체작업을 시도하여 첫째, 두 법령의 연속과 단절을 파악하고, 둘째, 북한이 새롭게 내놓은 법령 북한의 핵 교리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야에서 10 년만에 새롭게 핵무력법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력법제정 비교 2013 vs. 2022

북한은 2022 년 9 월 8 일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7 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지난 2013 년 핵보유관련법을 제정하였던 북한은 11 조 ‘2013 년 4 월 1 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고 명시함으로써 핵 관련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명시하였다. 11 개조 17 개 항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법은 10 개조로

구성되었던 과거 핵보유관련법보다 구성도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선 10 년전 북한이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2 년의 북한은 스스로를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국제적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2013, 핵보유관련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2022, 핵무력정책법).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방위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바라보는 외부세력이란 미국을 뜻한다. 즉,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들로 인해 부득이한 방위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란 북의 주권, 영토 그리고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전쟁을 방지, 즉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믿음직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게 된 정당한 방위 수단이다. (2013, 핵보유관련법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2022, 핵무력정책법 서문).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일적 지휘자로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 핵무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건을 밝히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명시하였다. 북핵의 대북 도발, 전쟁 억제 기능과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표한 핵보유국관련법에 1 개조의 내용을 통해 사용조건을 밝힌 것과 달리 핵무력정책법에서는 5 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과 6 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에서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한 배경과 목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핵보유관련법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핵무력정책법 5 조 1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핵무력정책법 5 조 2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1 항)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2 항)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3 항)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4 항)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5 항)

북한이 침략이나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2013 년의 핵보유국법령과 달리 핵무력정책법에서는 보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 조 1 항에서 3 항 모두 ‘적대세력’의 북한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의 지도부(지휘체계)와 주요 전략대상이 적대세력들로부터 위협감을 느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 판단의 여지와 함께 지도부(지휘체계)와 전략재산이라는 넓은 범위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핵을 보유하는 북의 의도를 한 층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5 조 1 항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의 자의적 오판의 가능성,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감으로부터 기인한 북의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성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남한)은 타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핵보유관련법 5 조).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핵무력정책법 2 조 3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력정책법 5 조 2 항).

수세적 성격의 2013 년 법령에 비해 공세적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번 법령은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핵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 사용에 대한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표현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최대 억지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시대에는 파괴력의 혁명적 증가 때문에 핵무기 사용 이후의 방어보다 상대방이 사용 이후 겪게 될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핵무기 사용 자체를 막도록 하는 억지가 매우 중요한데(하영선, 2017),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핵을 이용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이러한 열린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의 정치전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은 핵을 무기로 삼아 열전만큼 뜨거운 정치전을 심화시킬 것이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외교전에서 문제 풀이의 난이도를 한 층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표 1〉 북한의 핵 독트린 비교(2013 vs. 2022)

구분	핵보유국법(2013)	핵무력정책법(2022)
서문	· 핵보유국 지위 천명	· 핵무기 사용전략과 정책 천명
임무 (사용목적)	· 정당한 방위수단	· 기본 사명: 전쟁억제 · 작전적 사명: 전쟁의 결정적 승리
사용원칙	· 선제불사용(NFU*)독트린 채용	· 언제든지 사용 가능(NFU* 미채용) · 비핵국가에 사용가능
지휘통제 (NC2**)	·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	·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 ·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보좌 · NC2 유고 시 제한적 위임
사용조건	· 침략·공격을 억제·격퇴 침략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타격	· 핵·WMD 공격 또는 임박 시 · 국가지도부·핵무력지휘기구의 핵·비핵 피격 시 · 전쟁확대·장기화 방지나 주도권 장악의 작전상 필요 시 · 기타 불필요한 상황 조성 시
유지정책	· 핵 능력의 질량적 강화	· 핵무력태세 항시 평가 · 핵무력의 질량적 갱신 · 강화

자료: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 함의(양욱)

주: (1) NFU: No First Use(선제불사용)

(2) NC2: Nuclear Command & Contro(핵 지휘통제)

북핵을 통해 바라보는 북한의 물상과 심상

북한은 2013 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노선 초기에는 핵과 경제의 상호 순환 작용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북한은 핵을 앞세워 경제 노선을 견인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가 그것이다. 경제노선 이외에도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비핵화 실현 그리고 평화체제 등이 있다. 북한은 핵이 갖고 있는 군사적 성격 이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별다른 방도가 없는 북의 입장에서는 핵의 정치전을 통해 북한식 셈법이 통하게끔 북한식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위)에서 인류의 공동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을 밝히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앞에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로동신문,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

앞에서 서술한 대로 북한은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을 통해 미국에게

발신하고자하는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 (2013.12.16 외무성 담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 위업의 전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 국방력 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위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2016 신년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2013 년 2 월 3 차 핵실험, 2016 년 3 월 4 차 핵실험 그리고 반년 뒤인 2016 년 9 월 5 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한 다음, 만약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가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할 길임을 확증해 주었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해도 북한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영선, 2017) 이듬해인 2017 년 9 월, 북한은 6 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동년 11 월에는 ICBM 화성-15 형을 발사하였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6 차 핵실험과 ICBM 화성-15 형 발사 이후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와 2397 호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항이 포함되고 추가 제한 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김위원장은 2018 년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승리를 도약대로 삼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와 로켓 부문에서는 ‘위력과 신뢰성이 담보 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하영선, 2018)

김정은 위원장은 핵 노선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8 년을 “우리 당의 자주 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총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 해”로 규정하고(하영선, 2019), 동년 4 월 20 일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에서 그 동안 추진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인 ‘신전략노선’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당 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긍지 높이 선언하시었다.”...”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노선이라고 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핵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선을 선포함과 동시에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였다. 그 결과 2018 년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 년 신년사에서 북미회담을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의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영선, 2019)

기대와는 달리 대북경제제재 해제,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체제보장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 2 차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측이 예정없이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 총 11 건 가운데 2016 년부터 17 년까지 채택된 5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는 부분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북미간 담판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지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꼽으면서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을 물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은 최선희 부상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양측이 여전히 서로 다른 셈법을 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재 해제 이외에도 북미는 이행 순서에 대해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의 순서, 대상은 물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또는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서 따라오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이행과정 역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또 한번의 관계가 후퇴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8 년 4 월 천명한 ‘신전략노선’의 뼈격거림과 함께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은 이미 이때부터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는 대내외적 위기였던 것이다. 북한은 2019 년 10 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 연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발표했다. 뒤이어 며칠 후 한동안 대미라인에서 물러서 있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서도 미국의 결단을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이 원로들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미국의 변화를 주문하는 것은 북한의 초조함과 절박함을 드러내는 일면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초조함과 절박한 입장의 북한이 왜 연내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했던 것일까? 아마도 북한 지도부 마음속에는 핵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 년 연말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난관을 강조하였다. 하영선(2020)은 북한이 2013 년 3 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2018 년 핵 기반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거쳐, 핵 억제력과 자력갱생으로 북이 맞이한 난관을 돌파려는 제 2 의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났을 흑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다.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은 곧 멀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 년 8 월 19 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2021 년 1 월 8 차 당대회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2016 년 7 차 당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개선전략’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였다.

경제발전 5 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 년 이후 북한의 GDP
성장률은 하향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3 중고로 2020 년 -4.5%, 2021 년 -0.1%로,
2016 년 이후 3 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2019 년에 이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또한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각 분야별 산업 중, 광업과 농림·어업 부문이 각각 -9.6%, -
7.6%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북한경제의 악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코로나 19 로 인한 선제적 봉쇄정책에 따른
무역량 감소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은 이른바 조기 셀프 봉쇄정책을 실시해 따른 대외무역
감소의 영향 역시 북한의 국내역량 강화의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제 전략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새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 2 의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도 핵과 경제 발전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한계때문이다. 핵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북한은 연이은 경제악화로 별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력갱생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내세우는 다른 노선 역시도 경제노선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늘날 북한이 선택한 핵을 통한 경제발전 그리고 다른 노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는 전략은 모든 목표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 때문에 선순환 작용이 전혀 안되는 구조로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0 년 12 월 북한은 외부사조유입으로 인한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공포하였고, 2021 년 1 월에는 전 사회적 기강확립을 위해 규율조사부, 법무부 등을 신설하며 내부단속을 강화하였는데, 북한의 내부 사회에도 연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핵을 이용한 내부 단속과 함께 동시에 경제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과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 밖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2020 년 8 월 19 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8 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 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제 8 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8 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것임을 경고장을 날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에서 계속 북한을 몰아붙이면 북한도 한국을 달리 상대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 년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이고 최대의 주적이라 표현하며, 북한이 줄 곧 주장해온 자주의 원칙과 북한형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에 있고, 앞으로도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한다는 것이다.(하영선, 2021) 한국과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 역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 즉 타방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함과 동시에 타방의 선택이 향후 북한의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구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미국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면서 남한에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내민 건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동맹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교적 관여’, ‘조건 없는 대화’등 외교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대외적 명분을 쌓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정치전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침묵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으로 된다.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 될 것…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 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들의 적대적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위협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과의 강권과 전횡이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1 년 10 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은 한미 공동 군사연습과 한국의 군비 현대화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과거와는 다른 고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에 불안정한 정세를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의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강화 움직임의 기조는 2022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은 2021 년 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식 명분을 앞세워 조선 노동당 8 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 혁명 2 차 5 개년 계획(2021-2025)에 따라 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기술적 수단을 개발 생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일본과 남조선의 맹목적인 추종으로 가속화되고있는 미일남조선 3 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명백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위협한 전주곡이다. ...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있으며 힘과 힘이 격돌하는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있다.. 미국이 대중국억제를 목표로 하는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작성하면서 천만부당하게도 우리 나라를 이른바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주요위협》으로 특별히 규정한것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겨냥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군사, 안보 협력 이외에도 경제, 정보 등 비군사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제국주의 침략이라 비판하고 있는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주장하고 미국 역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미국이 재차 용인하였다. 한미일 3 자 간에는 안보협력의 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다. 역내 다자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협의체는 2020 년 8 월 화상회의에서 공식기구화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이 참여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창설이라며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 통해 9 월 25 일부터 10 월 9 일까지의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보도하였다. 북한이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 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이번 군사훈련의 목적을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첫 머리에서 밝히고 한미군사훈련,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이러한 대외적 상황으로 북한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북한식 명분을 드러냈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해상전력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었다.

미국은 우리의 국가핵무력정책법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 첫 시범으로 9 월 23 일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 호타격집단을 끌어들인데 이어 26 일부터 29 일까지 런 나흘간에 걸쳐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과의 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으며 30 일에는 일본, 남조선과의 연합반잠전훈련을 강행하였다.

10 월 6 에는 조선동해수역을 떠났던 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재진입시켜 연합미싸일방위훈련을, 연이어 7 일과 8 일에는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공공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를 고쳐하였다. (로동신문)

9 월 9 일 핵무력정책을 공표한 동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훈련들을 조직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9 월말부터 10 월초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지도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은 거침없이 각 훈련의 수행 시간, 내용은 물론 목적을 상세히 밝혔다.

9 월 25 일 새벽 우리 나라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훈련의 목적은 전술핵탄두반출 및 운반, 작전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취급절서를 확정하고 전반적운용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수중발사장에서의 탄도미싸일발사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민음성이 검증되었다…또한 실전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수중발사장건설방향이 확증되었다.

9 월 28 일 남조선작전지대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에서도 핵탄두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99 월 29 일과 10 월 1 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에서도 해당 설정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하였다.

10 월 4 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로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km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10 월 6 일 새벽 적의 주요군사지휘시설타격을 모의하여 기능성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싸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9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10 월6 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이 진행되었다...합동타격훈련은 적군사기자를 모의한 섬목표에 대한 공군비행대들의 중거리공중대지상유도폭탄 및 순항미싸일타격과 각종 근접습격 및 폭격비행임무를 수행한데 이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순차별 화력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0 월 8 일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있는 정세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 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출격시킨 선인만군 공군의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되었다…훈련에서는 공군사단, 연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수행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증하며 비행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이어 이날 밤 적작전비행장타격을 모의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전투정황에서의 신속대응능력과 군사적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성능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로동신문)

나가며

현재 북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또 북한이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대내외적인 객관적 어려움에 북한의 시야의 한계로 인한 주관적 위협이 얹히면서 북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객관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개의 조약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오직 단 하나 핵만이 북한이 호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꺼내어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조약돌 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22 년 9 월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을 이용한 정치전을 시작하였다. 북한이 꺼내든 조약돌로 오늘날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의 흐름 속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핵의 군사적, 정치적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땅 위에 거주하는 고된 사명감을 안고 핵으로 인한 인류사적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육. 2022.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 함의”

하영선. 2017. “북핵위기 해결의 새 길 찾기”

_____. 2018. “김정은 신년사의 세 얼굴과 평창올림픽”

_____. 2019. “김정은 2019 년 신년사와 완전 비핵화의 과제”

_____. 2020. “북한의 2020 년 2 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_____. 2021. “북한노동당 제 8 차 대회: 제자리걸음하는 북한의 향후 5 년)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2”

러일 관계 불화의 시작 오쓰 사건(大津事件) _글로버가든

정하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들어가며

수천년 동안 지속도 왔던 동아시아 내에 천하질서로의 국제 질서는 16 세기 근대시기에 들어서게 되며 서양이라는 새로운 문명 표준에 두드림을 통해 차츰 그 무게를 잃어가게 된다. 17 세기 쇄국정책의 일본은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독점 무역을 통해서 서양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 수신지였던 나가사키 항은 서구 열강의 새로운 무대로 발돋움 하였다. 1850 년대의 개항기와 1860 년대 개화기를 거쳐 새로운 동아시아의 신인으로 자리잡게 된 근대일본은 그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으로서는 매력적인 서구 열강의 모티브 모델이 필요했을 것이며, 서양의 여러 후보 모델들은 자신들의 매력을 아시아의 발산하기에 여력을 다하였다.

19 세기 국제 무대에서의 서방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국제질서의 각축을 다두고 있었으며 점점 그 여파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 서구의 여러 국가들중 영국과 러시아는 세계질서 차원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유럽과 아시아 전선의 곳곳에서 치열한 세력싸움을 벌였다. ‘거대 게임’(great game)의 영국과 러시아는 일본과의 밀고 당기는 연애 구도를 만들어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협력자로서 양자택일의 삼각관계 형성구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격변하고 있는 당시 근대 상황에서 일본은 혼돈의 ‘근대 무대’ 속에서 파트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이에 유럽 대륙에 새롭게 등장했던 두 강국인 영국과 러시아는 끊임 없는 구애를 통해 일본이라는 새로운 동쪽 무대를 갈구하였다. 당시 일본의 국내 상황도 어지러운 정세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에도 시대 말기에 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번부간 대립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전함을 앞세워 개항을 강요하는 서구 열강들의 구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 영국의 글로버와 러시아의 푸타틴을 통한 영국·일본과 러시아·일본의 만남과 과정 속에서 1902 년 영일동맹과 1904 년 러일전쟁으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맹주였던 러시아는 그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고 영국의 모델을

선택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며 아시아의 제국으로서 자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이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배격했던 이유를 찾아보고 그 중심에 니콜라이 황태자(Nikolai Alexandrovich Romanov)를 시해하려 했던 ‘오쓰 사건’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9 세기 영러일의 삼각관계

1. 글로버로 시작한 영국과 일본

먼저 영국과 일본의 상징적인 만남의 주인공으로는 글로버 가든의 주인인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에서 시작된다. 그는 무역상으로서 나카사키에 상륙하여 데지마를 거점으로 무기거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글로버의 특유의 친화력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외적 개화와 대내적 개혁에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당시 나가사키에서 가장 큰 외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기반을 활용하여 막부 세력을 전복하는데 필요한 군함, 소총 등을 제공해줄 수 있었던 글로버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다
가
왔
을

것
이
다

조슈 5 걸파견은 그들로 하여금 메이지 유신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는 당시 영일관계에 큰 사건으로 자리잡게 된다.

2. 푸타틴으로 시작한 러시아와 일본

한편 19 세기 중반 러시아는 연해주 지방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사절 페리를 일본에 보내 개국을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뒤질 수는 없었다. 사절 예브피미 바실리에비치 푸타틴(Yevfimiy Vasilyevich Putyatin)이 파견되었다. 푸타틴에 교섭 끝에 1855 년 마침내 러일 통교 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일본과 국교를 맺었고, 이때 일본과의 국경획정 교섭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할 수 있었다.(와다하루키 2009, 108) 1873 년에 정교의 포교활동을 하던 니콜라이 주교(Ivan Dmitrovich Kasatkin) 가 도쿄에서 러시아어 교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러시아와 비교해 보면, 표토르 대제의 명으로 이르쿠츠크에 일본어 학교가 설치된 것은 18 세기 일이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았으며, 같은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동양 각국의 언어 및 동양 사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동양학원이 개설되었다.(와다하루키 2009, 149)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과 동방정책에 대한 구상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 1889 년 3 월 러시아의 재무성 철도 사업국장에 세르게이 비테(Sergei Witte)가 임명된 후로 극동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는

시베리아가 극동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러시아가 프랑스로부터 자금 도입에 성공하여 시베리아 철도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태평양 연안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로를 건설하게 된다. 이는 즉, 세계 제일의 육군군인 러시아가 영국의 제해권에 저지되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일본까지 직접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이었다.



<그림 1> The arrival of Czarevitch Nicholas at Shimbashi Station

Courtesy the Kanagawa Museum (출처: Donald Keene. 2002)

1891 년 3 월 31 일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참석 전 세계 탐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러일관계의 큰 여파를 가져오게 된다. 일개 일본 순사 한명이 대러제국의 황태자인 니콜라이를 시해하려 했던 ‘오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급박하게 변동되어 간다.

3. 일본의 대외 정책과 러시아 견제

러시아는 1700년대 초부터 지시마 열도를 따라 남하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 일본어 학교를 세워 남하 정책을 본격화 한다. 일본은 이때 처음 ‘북방문제’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1780년대에 하야시 시헤이(Hayashi Shihe)가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서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국 일본은 국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삼성 2009, 202)

일본은 189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군주의로 나아가는 기틀을 세웠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경계하면서 무력기반과 정치제도적인 체제 정비를 이룩한다. 1889년 2월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은 그것을 기초한 이토 히로부미의 말대로 “국권을 강고히 하고 그것을 가장 중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이삼성 2009, 406) 이처럼 일본은 내부 군비확장을 전격화 하였고 육군 편제를 독일식으로 바꾸었다.

당시 유력언론으로 '일본' 이라는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이

신
문
의

동방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892 년 일본의회는 천황의 칙어를 받들어 해군 확장 7 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정계와 언론 및 학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대외강경파가 형성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이삼성 2009, 406) 1890 년까지 일본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개혁이었다. 반면에 1890 년대 초를 기점으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외 팽창이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되었다고 많은 일본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1894 년 여름은 일본이 과거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마침내 해소함으로써 국제질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당시 영국과의 조약을 개정한 것이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계를 가지게 된 계기는 시베리아 철도의 착공에서부터이다. 이 구상은 이미 일본에 알려져 있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화자가 된 것은 1887 년 런던 ‘타임스’가 그 해 6 월 24 일자 지면에 이때까지 환상에 지나지 않았던 시베리아철도 구상에 관해서 보도했다. 이 기사를 ‘조야신문’이 재빨리 번역해 8 월 2 일자에 ‘시베리아철도의 부설’이라는 목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8 월 12 일과 13 일에는 ‘시베리아 철도와 동아시아 삼국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와다하루키 2009, 155) 논설의 필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착공은 군사적으로 일본 청나라 조선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이므로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라고 단언한다. 일본에서는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이 구체화하기 훨씬 전부터 경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서 구가 가쓰난이 상정했던 변화의 요인 중 한가지로는 1891 년에 러시아 프랑스로부터 자금도입에 성공하여 시베리아 철도공사에 착공한 것이 거론될 수 있다. 즉,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태평양 연안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하나의 선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통수단의 변화는 지구라는 공간을 보는 시점에서 커다란 전환을 불러 일으킨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국제정치 지도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계되어 당시 일본 내에서 동방협회 등의 조사단체나 정치결사의 결성을 재촉했다.

또한 교통수단의 변화는 경제와 사람의 흐름을 바꾸지만 그로 인해 병사나 무기를 보낼 수 있기도 하며, 군사 균형에도 변동을 불러일으킨다. 즉, 시베리아 철도의 완성에 따라 세계 제일의 육군군인 러시아가 영국의 제해권에 저지되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직접 군사작전을 전개해 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교통수단의 출현은 단지 일본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정치에도 커다란 변동과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구가

가쓰난에 따르면 1891 년에 일어난 이들 일련의 사태는 “모두 국민의 대외심을 고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신이치 야마무로 2005, 55)

이러한 영향으로 반러 감정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쓰 사건’이 있기 1 년전 1890 년 천황의 마차가 의회 방문 후 러시아 공사관을 지나가게 된다. 당시 천황은 정자 곁을 지나다가 공사 부인을 알아보고는 모자를 벗어 예를 갖추다. 그런데 천황이 지나가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러시아 부인들을 향해 돌을 던졌고 공사의 한인이 같은 식으로 응수하여 양쪽 진영에 돌팔매가 빗발치듯 날아 들어왔다. 동시에 군중들이 공사관의 철문을 밀고 들어오려 하였으나, 경찰대의 진압으로 질서를 회복 할 수 있었다.

황제 알렉산더 3 세(Alexander III)는 니콜라이의 방일을 앞두고 이 사건을 듣고선 “이와 같은 반외국인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황태자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짐을 조금 불안하게 한다”라고 기록했다.(와다 하루키 2009, 158) 그리고 그의 걱정대로 자신의 뒤를 이을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불화의 시발점 오쓰 사건'(大津事件)

1. 오쓰 사건의 전개 과정

2. 러일 관계 불화의 시작 오쓰 사건(大津事件)



〈그림 2〉〈니콜라이 황태자 1891 년 인력거 모습〉

<Nagasaki Museum of History and Culture>

(출처: A. H. Мещеряков. 2018)



〈그림 3〉〈오쓰사건〉

(출처: Dmitry Mityurin. 2015)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황태자는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대를 인솔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다. 니콜라이 황태자 일행은 나가사키와 가고시마를 방문한 후, 고베에 상륙해 교토로 향할 계획이었다.

1891 년 5 월 11 일 오후, 교토에서 비와호 당일치기 관광 후 돌아가는 길에 니콜라이 황태자 및 함께 방일하고 있었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요르요스(George I of Greece), 다케히토 친왕(Prince Arisugawa Takehito)의 순번으로 인력거를 타고 오쓰 시가를 통과하는 도중에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가현 경찰서 순사 쓰다 산조가 돌연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브르(saber)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니콜라이는 인력거에서 뛰어 내려 옆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쓰다는 니콜라이를 쫓아가면서 부상을 입히려 시도했다. 그러나 쓰다는 요르요스 왕자의 대나무 지팡이에 등을 맞고, 니콜라이 황태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또한 요르요스 왕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는 쓰다가 떨어뜨린 사브르를 휘둘러 쓰다의 목에 상처를 입혔으며, 결국 쓰다 산조는 경비 중이던 다른 순사에게 붙잡혔다. 니콜라이 황태자는 오른쪽 두부에 7cm 와 9cm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케히토 친왕은 현장에 있었지만 구경꾼에게 막혀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는 이미 쓰다가 잡힌 후였다.

이후 유학과 해외군사시찰 등의 경험을 통해 국제 관계에 정통하고 있던 다케히토 친왕은 즉시 이 사건이 자신의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 문제라고 판단, 수행원에게 명해 전말을

즉시 정리해 도쿄의 메이지 천황에게 전보로 보고하게 하고, 동시에 러시아 제국 측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천황이 교토로 긴급 행차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을 받은 메이지 천황은 즉시 확인하고, 다케히토 친왕에게 니콜라이 황태자의 신변 경비를 명하는 동시에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Kitashirakawa Yoshihisa)을 문안사로 교토에 파견했다.

사건 다음날인 1891 년 5 월 12 일 아침, 메이지 천황은 신바시 역에서 기차에 올라 같은 날 밤에 교토에 도착했다. 메이지 천황은 그날 밤에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 할 예정이었지만, 니콜라이 황태자측의 요청에 의해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아리스가와 다케히토 친왕의 형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Arisugawa Taruhito)도 메이지 천황의 뒤를 따라 교토에 도착했다. 5 월 13 일에 메이지 천황은 니콜라이 황태자의 거처였던 교토 호텔로 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하고, 다케히토 친왕과 요시히사 친왕, 다루히토 친왕을 데리고 가 고베까지 배웅했다.

나중에 메이지 천황이 스스로 고베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을 방문할 때, 신하들이 ‘납치될 수 있다’ 라고 반대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요양 중이던 니콜라이 황태자를 다시 병문안 했다. (서현섭 2004, 142)

당시 소국이라 여겼던 일본이 대국인 러시아의 황태자를 부상하게 했다고 하여 ‘러시아가 보복하기 위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다. 학교들은 근신의 뜻을 표하기 위해 휴교를 하고, 신사나 사원, 교회에서는 황태자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보내진 문안 전보는 1 만통을 넘어갔고, 야마가타현(山形縣) 가네야마정(金山町)에서는 ‘쓰다’(津田)라는 성과 ‘산조’(三藏)라는 이름의 명명을 금지하는 조례를 결의하기도 했다. 또, 1891 년 5 월 20 일에는 하타케야마 유우코(Yuko Hatakeyama)라는 아녀자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라면서 교토 부청 앞에서 면도기로 자살했다.(서현섭 2004, 142) 외국어에 능통한 게이오 대학교의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사과편지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문안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2. 오쓰사건 이후

러시아 알렉산더 3 세는 일본 천황을 비롯한 전 국민의 성의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오히려 황태자의 부상으로 일본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일본인들의 과도한 사과 러시아를 감동시킨 것이다. 러시아는 대국적인 아량심을 베풀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러시아의 관대함으로 한숨을 놓게 된 일본은 쓰다 산조를 형법 제 116 조를 적용하여 처형하려 하였지만, 고지마(Kojima Iken) 대심원장은 외국의 황태자 위해범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반적인 살인 미수범으로 다루어 무기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후 쓰다 산조는 4개월뒤에 폐렴으로 옥사한다.

러시아 알렉산더 3 세의 관대한 태도에 한숨 돌린 일본의 여론은 러시아와의 사단을 피했다는 자만감에서 인지 범인 쓰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주장이 드높아졌다.

쓰다는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우국지사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줄수록 양양이라더니 각지에서 쓰다가 단순한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열사라는 목소리가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일본의 국민성의 일단을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었다.

고지마 대심원장은 살인 미수범으로 다루어 무기형에 처하도록 했다. 5 월 29 일 이와 같은 언도에 대해 재판소 방청석을 꽉 메운 사람들이 '제국만세', '나라만세'를 절규하자 재판소 밖에 군집해 있던 무리들도 덩달아 '일본만세'를 외쳐 댔다. 고지마 대심원장은 개선장군이 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 '법의 귀신'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이 대단하다. (서현섭 2004,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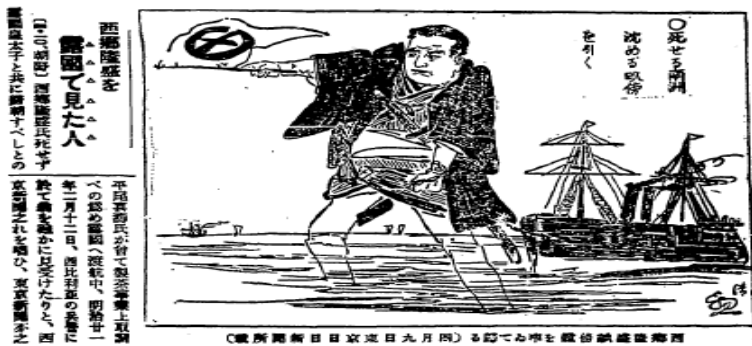
오쓰 사건과 러일전쟁

1. 오쓰 사건의 동기

당시의 ‘오쓰사건’을 가지고 여러가지의 추측과 의견이 남아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많이 없을뿐더러 니콜라이 일기의 회상 또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쓰사건’이 러일전쟁의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먼저 쓰다 산조의 범행동기에 대해서 그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임 쓰다는 재판 과정에서 니콜라이가 일본땅에 도착하면 우선 천황을 예방해야 하는데도 무례하게 유람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횡설수설했다. 또한 그는 니콜라이가 관광을 핑계로 일본 정탐에 나서고 있어서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강변하였다. (서현섭 2004, 145)



〈그림3〉〈사이고 타카모리의 풍살〉

(출처: Shin, Peter Yong-Shik, 1989)

학자들에 의해 추측되는 쓰다의 범행 동기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니콜라이 방일이 일본 침공을 위한 시찰이라는 풍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더하여 세이난 전쟁에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가 죽지 않고 니콜라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풍설도 만연하였다. 세이난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쓰다는 이러한 소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당시 일본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에 예민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두번째로는 진술 그대로인 광적 충성심에서 비롯된 범행 동기이다. 니콜라이가 천황을 만나러 도쿄가 아닌 나고시마를 가서 관광을 즐긴 것은 천황에 대한 모욕이었고 관광 중 사원 경내에 세워진 전쟁 기념비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소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러시아를 견제했던 일본 정부 내부에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이행 했으리라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이 단점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일본 내부적으로 정치적 변동의 혼란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한 반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국제관계의 갈등을 구체화 하여 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겉으로는 러시아의 관대한 태도로 잘 수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국제 무대를 바라보는 일본과 러시아의 다른 심상 속에 결국 공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으로 생각된다.

2. 전지적 러시아 시점

‘오쓰사건’을 두고 몇몇 역사가들과 대중적인 전기 작가들은 일본에 대한 니콜라이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는 ‘러일전쟁의 시발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10 년 동안 니콜라이의 재무장관이자 수석 보좌관인 비테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그는

회고록에서 마지막 황제가 ‘극동 모험’에 개입 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일본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대감과 그의 삶에 대한 시해가 있었던 곳”으로 인식 되고 있지 않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더 분명한 것은 일본 과의 전쟁 후 러시아 외무 장관 알렉산더 이스볼스키는(Alexander Isvolsky) “그의 생명에 대한 시도는… 니콜라이 2 세 편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심지어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믿었고, 러일전쟁의 애플로그인 그의 극동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다 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추론은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조명한 일은 많지 않다. 분명한 것은 황제자의 눈에 눈에 띄는 흉터를 남겼고, 죽을 때까지 두통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로템 코우너 1998)

도널드 킨(Donald Keene 2002) 또한 비테가 적은 회고록을 통해 ‘오쓰사건’은 러일 전쟁에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적대감과 경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니콜라이의 표현에 대하여 비테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당시 ‘오쓰사건’은 결과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암살 미수로 인해 니콜라이가 반일적 편견을 형성하여 13 년 후 러일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로템 코우너(Rotem kowner 1998)는 니콜라이의 일기 속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어떠한 분개심도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주목한다. 니콜라이는 일본과 전쟁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복수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일본인에 대한 그의 진정한 태도는 오리엔탈리스트에 대한 호의와 인종적 증오가 혼합된 것이었고, 이는 점차 그들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니콜라이의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가 방문하는 동안 본본 것 전후에 노출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일본인을 여성적이고 나약하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막연한 복수심 보다 이러한 견해가 러시아가 일본 국민성과 군사를 평가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코우너 또한 비테의 회고록을 주목한다. 세르게이 비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히 부상의 결과로 두통이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황태자의 급격히 부정적인 태도를 증명했다.(로렘 코우너 1998) 일본에서의 용문신이 그 사건을 계속 살아나게 했다. 그리고 그의 참모 비테의 표현에 의하면 이사건 이후로 그는 일본 천황을 ‘원숭이’라 불렀다. 이런 일본을 무시하는 발언들과 자세들은 러시아가 일본을 만만하게 보기에 적절한 예시로 들 수 있다. 더군다나 그는 여행 내내 일본 게이샤와 밤새 놀음을 하며 도쿄에서는 ‘도쿄창녀’를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도널드 킨 2002)

실제로 러일전쟁에 대한 쿠로파트킨(Aleksey Kuropatkin)의 회고록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요인이 일본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과 과소평가를 꼽고 있다. 쿠로파트킨 회고록에서 그는 “1900 년 페이츠리 성에서 우리 군대 편에서 싸웠던 일본군에게서 관찰된 행동은 무척 내 마음에 들었으며 그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다... 25 년 만에 일본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성장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움직임이 볼 수 있었고 근면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국가에 대해 대단한 애국심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눈에 느낄 수 있었다”(쿠로파트킨 2007)

요컨대 러시아는 황제를 포함하여 전쟁을 원하지 않고 협상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결의와 준비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협상을 망쳤고,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반성이었다.

3. 전지적 일본 시점

앞서 언급한 두 주장 모두 러시아의 입장에서 심상을 읽었을 경우 가능한 추측이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테의 회고록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개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일념으로 완성된 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비테 본인에게도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책임을 최고 책임자 황제에게 넘기고자 했던 마음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비테의 주장과는 다르게 저자가 읽은 니콜라이 본인의 일기에는 그다지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자는 러시아의 심상을 참고하여 일본에 입장에서 해석해본 입장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신영식(Shin, Peter Yong-Shik 1989)은 ‘오쓰 사건’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광신도 한 명이 일으킨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첫번째로 외부적인 요소로서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 즉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재정의한 1890 년에 발표된 야마가타(Yamagata Aritomo)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hin, Peter Yong-Shik, 1989) 단호하게 말해서,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면 ‘오쓰 사건’은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한 팽창주의인 외교의 발현이 된다.

이 사건은 근대 일본사에서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럽 강대국을 대상으로 시도된 최초의 팽창주의였다. 성공적인 결과는 특히 일본 지도자들에게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로, 근대 일본사를 조명하는 3 대(오쓰사건, 삼국간섭, 러일전쟁)의 첫 번째

사건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천황을 비롯한 일반 민중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국권숙기의 첫 번째 민족운동으로서 정부가 정한 방향에 따라 통일전선을 형성했다.

두번째로는 니콜라이에 방문 여정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먼저 나가사키에 도착한 니콜라이와 그의 일행은 즉시 상륙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항구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부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이미 니콜라이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차질이 생겼고 소문이 안 좋았다. 이후 그는 가고시마로 바로 향했는데 가고시마는 유신 운동과 메이지 정부 수립을 위한 많은 저명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사쓰마 지도자들은 이미 니콜라이 재위 당시 실제로 정부를 장악했던 제슈번 지도자들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긴 상태였다. 이후 홋카이도 방문은 일본 정부에도 예민한 문제였다. 영토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오모리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기로 하는데 이는 전략적 측면에서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아오모리와 하코다테 사이의 좁은 해협이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침략에 대한 조건 조사였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찰나였다.

이에 그는 일본정부는 당시 이미 극동의 국제정치에 관해 반러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국과 조약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그 동안 국회에 대규모 군사비 충당을 요구했다.

1891년 2월초 황실 접수 이원회가 조직되면서 정부의 경계태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가와카미 소로쿠(Kawakami Soroku)장군이 선출되었는데, 전술가로 유명했던 가와카미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정보 수집에 극도로 관심을 가졌으며 1892년까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hin, Peter Yong-Shik 1989)

세번째로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대외심을 고무시킨 점을 지적한다. 당시 준관영 신문인 ‘도쿄 니치니치’는 수상한 니콜라이의 방문에 대한 기사를 3월 7일에 실었다. “지리적 조건을 조사하고 또한 미래 침략 계획에 따른 군사 준비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in, Peter Yong-Shik 1989) 이는 대중의 오해를 방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썼다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이유로 신문 ‘도쿄 니치니치’는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뉴스 매체였다. 두번째로는 이 신문 기사는 국회의회의가 끝난 후 다른 신문이 아닌 ‘도쿄 니치니치’에 의해 기제되었다. 셋째 기사가 상대적으로 큰주제로 제시되어 있었고 “Suspicious Eyes” 이 제목이었다.(Shin, Peter Yong-Shik 1989) 넷째로는 니콜라이의 여정에 있어 이미 일본 정부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그리고 도쿄니치니치의 이 기사는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기사가 나온 직후 대중에게 엄청난 여향을 미쳤고 니콜라이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지방과 수도권 신문에서 모두 발행 되었으며 니콜라이가 일본에 도착할때까지 계속해서 발행되었고 이에 대해 국민 노토모(The Nation's Friends) 는 니콜라이의 일본 방문이 일본 국민의 게으른 눈을 깨우는데 일조했다는 냉소적인 논평을 4 월 4 일 114 호에 기재했다.(Shin, Peter Yong-Shik 1989) 더하여 당시 오쓰현에 경찰청장과 평소에 니콜라이의 방한에 불만을 품었던 순사 산조의 배치와 쓰다 산조의 재판을 진행했던 고지마 재판장에 대한 의심 또한 증거로 채택한다.

그는 나아가 쓰다 산조에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는데 ‘오쓰사건’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정치가와 지식인 해외활동가 중 그 누구도 ‘오쓰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쓰다 산조에 대한 기록은 포르투갈 영사 웬체슬라우 드 모라에스(wenceslao de Moraes) 만이 츠다에 대해 회고하면서 불행한 애국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또한 5 월 20 일 하타케야마 유코는 사죄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에게는 추도식이나 회합이 있었고 전기도 쓰여졌다. 그러나 쓰다 산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에 쓰다 산조가 폐렴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라는 추측에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 의한 확실한 문서로서의 단서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본 정부와 당시 언론은 국민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계심을 고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완공하여 동아시아내 패권을 잡으려 했던 러시아의 속내 또한 너무나도 극명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다툼에 불을 지핀 것 또한 확연하다. 이러한 국내적 심상과 국제적 물상이 결합되어 드러난 사건이 ‘오쓰사건’이라 생각된다. 이는 서방제국과 아시아제국의 첫 격돌이 될 수 있었던 트리거 포인트이자 근대에 들어서 아시아제국과 서방제국의 갈등의 세계질서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발현된 첫 사건이다.

맺음말

오쓰사건은 당시 국제관계속 일촉즉발에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러시아로서는 일본을 얹잡아 보고 있었던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곧 러일전쟁의 패배를 야기했던 첫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게는 극한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를 두고 러일전쟁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시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에게는 서방을 군사적으로 경계하며 동아시아의 유일 제국으로서의 불가피 하다면 서방과의 전쟁을 서슴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된다.

니콜라이는 1891 년과 1892 년을 자신의 암흑기라고 일기에 쓰고 있다.(니콜라이 1923) ‘오쓰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부들의

죽음과 무엇보다 1892 년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점이었던 ‘오쓰 사건’은 죽을 때까지 상처부위에 두통을 야기하였으며, 일본에서 하게 되었던 용문신은 계속해서 그 아픈 상처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은연중에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비테의 회고록에도 쓰여 있듯이 니콜라이는 일본 천황을 ‘원숭이’로 묘사한다. 이는 일본 여행에서 보여줬던 긍정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아직 일본을 제국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특히 ‘오쓰 사건’이후에 일본인들에 사과와 태도는 당사자들에게는 마땅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러시아 인들에게는 본인의 생각 이상의 굴욕적이며 야만적 사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알렉산더 3 세의 관용과 니콜라이 황태자의 관대함은 일본인들을 자신들의 수준보다 낮게 평가 함에서 오는 배려였을 것이다. 이는 곧 러일전쟁을 앞둔 러시아인들에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과소평가 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갓 20 년을 넘긴 일본국민과 정부의 심상에는 국제질서를 대하는 두 가지 극명한 태도가 있었다. 하나는 서방의 열강을 두려워하고 예(禮)를 지켜 전쟁을 피하려 했던 유신 이전의 보수주의적 성향과 아시아의 근대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근대국가로서의 자신감과 제국으로서의 열강에 오르고자 했던 팽창주의적 성향이다.

이는 1889 년 메이지헌법(‘大日本帝國憲法’)의 공포와 이듬해의 국회 개원으로 메이지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건국 이래의 어지러운 정치 향쟁이 고정된 하나의 헌정 질서의 테두리 속에 틀이 잡히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불평등조약’체제의 수정을 서양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부터 시작된다.(박영재 1994)

더하여 ‘오쓰사건’에 배후에는 일본의 극 진보의 가담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일개 순사 한명이 본인의 광적인 충성심에서 벌여졌다고 하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전쟁으로 커질 수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눈엣가시처럼 거슬렸을 것이다. 실제로 니콜라이와 함께 일본에

방
문
했
던

에
스
퍼

우
크
56
툼
스

결론적으로 ‘오쓰사건’은 당시 심각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잔잔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더군다나 제국의 황태자를 시해하려 했던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이 없었다. 일본의 과한 대처와 그로 인해 감명받은 러시아의 관대함이 사건을 무마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사건은 아시아와 서방의 첫 격돌을 앞당길 수도 있는 사건이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 청나라 구도의 팽창 싸움으로 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일본에게는 제국 열강에 반열에 오르기 위한 첫 시도이자 서구 제국들에 대한 경고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동서간의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1904 년 러일전쟁이라는 동서양 제국의 첫 격돌로 이어졌으며, 러시아의 패배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영일 관계는 글로버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여 1901 년 영일동맹이라는 공생의 관계로 이어졌다. 일본 답사에서 보았던 글로버 가든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고 광활하였다. 타지의 땅에 영국의 한 청년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터를 보며 승자의 역사는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실패한 역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구나를 느꼈다. 그렇게 러시아와 일본의 공생의 노력들이 ‘오쓰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러일전쟁으로 파국에 달아 현재까지도 영토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러시아와 일본간 화친조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참고문헌

- 박영재. 1994. “1890년대 일본의 외교와 외교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를 중심으로—”
- 서현섭. 2004. 〈지금도 일본은 있다〉
- 신이치 야마무로. 2005. 〈러일전쟁의 세기〉
- 알렉세이 니콜라이비치 쿠로 파트킨. 2007. 〈러일전쟁〉
-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 와다 하루키. 200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 Dmitry Mityurin. 2015. 〈Японская метка
Николая II. Часть 2〉
- D
- Nicklai Ib 1926. 〈Nicklai II's Diary 1890– 1906〉
- Rotem Kowner. 1998. 〈Nicholas 2 and the Japanese body〉
- Peter Yong-Shik Shin. 1989. The Otsu incident: Japan's hidden history
of the attempted assassination of future Emperor Nicholas II of
Russia in the town of Otsu, Japan, May 11, 1891 and its
implication for historical analysis
〈Emperor of Japan Meiji and His World, 1852 – 1912〉

난학의 종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젊은 시절 _ 데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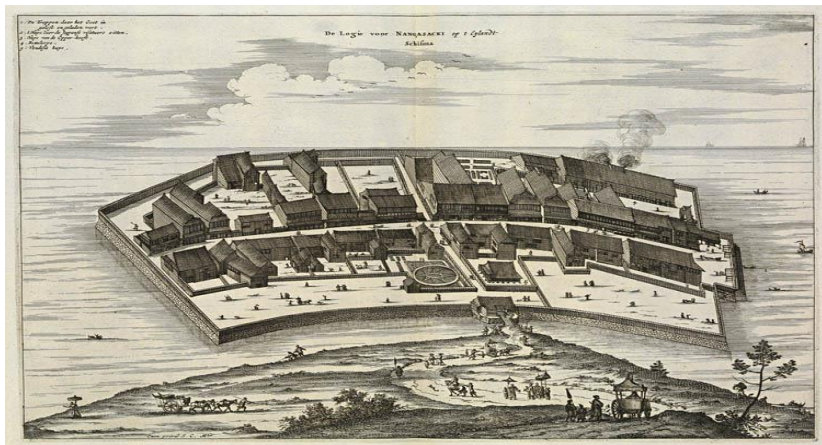
박예은

중앙대학교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근세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쇄국을 고수했던 조선과 자발적으로 근대화에 나섰던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 그 배경에는 데지마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2023 년 2 월, 사랑방 15 기, 17 기 그리고 19 기까지 세 기수가 함께 했던 규슈 답사 첫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데지마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둘러 쌓여있는 데지마는 홀로 근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지어진 부채꼴 모양의 조그마한 인공섬, 데지마(出島)는 2 백년이 넘는 막부의 쇄국 시기 동안 서양과의 무역이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곳입니다. 기독교 전파를 앞세운 포르투갈이 방당하고, 1641 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상관이

데지마로 옮겨졌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데지마에서 그 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림 1〉 데지마 조감도(1669) (출처 : the Memory)

작은 다리가 유일한 출입구였던 데지마에는 허락된 소수의 일본인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네덜란드 VOC 의 상관원들은 1 년에 한 번, 쇼군을 알현하기 위한 외출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토록 엄격했던 쇄국 정책 하에서 근대화의 단초가 되어 준 것은 바로 난학(蘭學, Rangaku)의 융성입니다. 난학은 네덜란드어 서적을 통해 들어온 유럽의 실용적인 과학, 의학 등 학문과 기술, 문화를 통칭합니다.

쇄국 초기인 1720 년까지 일본 내 양서의 수입과 네덜란드어 학습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지마를 통해 와인과 망원경, 지구본과 같은 서구의 첨단 문물들이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774 년, 난의학자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와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 1723-1803)의 『해체신서 (解體新書)』 출간은 난학 융성의 시발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875 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그의 저서 『문명론 개략』에서 “서양 문명은 우리의 국체를 굳게하고 더불어 우리 황통에 빛을 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인데, 이를 받아들임에 어찌 주저함이 있어서랴. 단연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서양 문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서양 문명’은 네덜란드어를 통해 구미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는 난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통해 구미의 역사와 문화, 그 사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영학(英學)’을 주창했습니다. 19 세기 일본의 길을 앞서 걸은 것입니다. 그의 문명론은 일본의 오랜 봉건적 전통을 뒤흔들었고, 근대화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후쿠자와가 세상을 떠난지 120 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그의 초상화는 1 만엔 속에 살아 숨 쉬며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본 답사보고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삶과 심상의 변화를 통해 19 세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난학에서 영학으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질서의 변동과 난학의 쇠퇴

동아시아의 근세가 격동의 시기였다면, 그 진원지는 단연 구미 열강이었습니다. 17 세기 초, 네덜란드는 강력한 자본력과 해군력을 가진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포르투갈을 압도하는 슈퍼 파워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1639 년에 막부가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교역 상대를 전환했던 것의 대외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18 세기의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문명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구미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하영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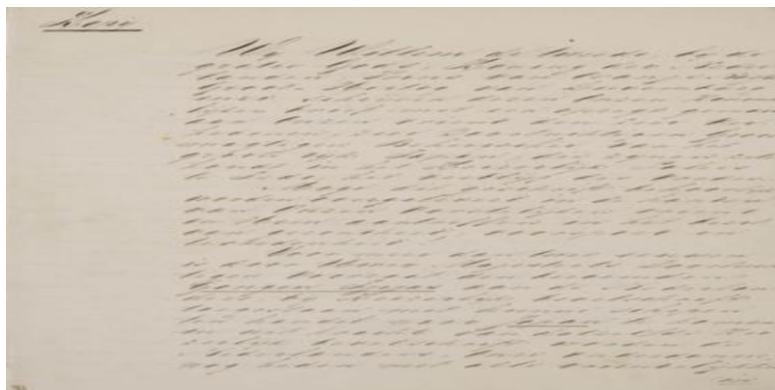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한 세기 동안 해상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 세기에 잇따른 영국과의 전쟁으로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태양왕 루이 14 세가 이끄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동은 자연스레 일본 내 물상과 심상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18 세기 네덜란드의 쇠퇴가 곧바로 데지마와 난학의 쇠퇴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개항은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의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고도 한 세기가 넘게 지나, 1859 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항 이후에는 일본 사회 내에서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자는 양이주의가 성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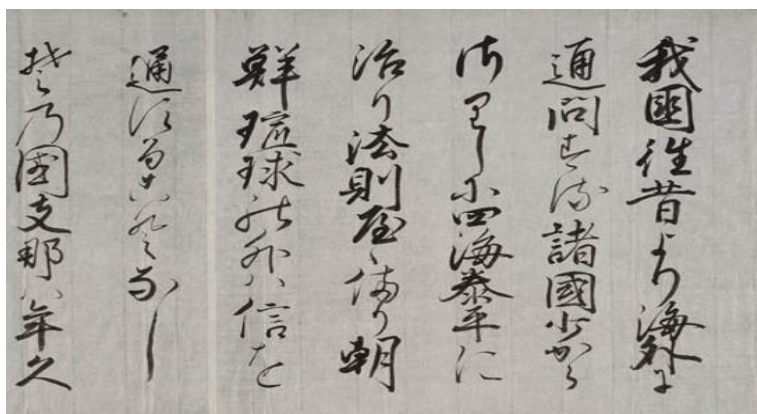
한편, 막부는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제 정세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데지마에 입항하는 네덜란드의 모든 선박에게 최근 해외 동향에 대한 보고서, 화란풍설서(和蘭風說書)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막부는 일찍이 네덜란드의 쇠퇴를 알고 있었지만, 19 세기 중반까지 쇄국을 고수했습니다. 그 강경함은 당시 외교사료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44 년, 네덜란드의 국왕 빌럼 2 세는 쇼군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영국이 청나라를 개방하려 벌였던 아편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개항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충고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쇼군은 매우 단호히 개항을 거절했습니다.(Fuyuko, M 2011). 1852 년 네덜란드 국왕의 편지가 또 한번 나가사키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의 항구를 무력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페리의 함대가 일본에 내항하기 1 년 전이었지만, 막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2> 빌럼 2 세의 편지(1844)

(출처: the Memory)



<그림 3>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답장(1845)

(출처: the Memory)

하지만 굳건했던 막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페리의 내항을 기점으로 일본의 쇄국 정책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난학의 쇠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젊은 시절과 난학

18-19 세기 일본 내 학문의 흐름은 한학, 전통 유학에서 난학으로 다시 영학으로의 변환을 거듭했던 후쿠자와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있습니다. 후쿠자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19 세기 난학의 쇠퇴와 영학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난 후쿠자와는 번의 풍습에 따라 14 세에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또래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학문적 재능을 가졌던 후쿠자와는 금새 한학자의 초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자란 나카쓰 번은 사족 사이의 문벌제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공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 이르기까지 상하귀천을 구별하여 서로 사용하는 말투가 달랐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후쿠자와는 자연스레 문벌 제도에 반감을 품었고, 봉건 사상으로 찌든 고향을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853 년 페리 함대 내항의 여파로 후쿠자와의 형이 난학 공부를 권했고, 마침내 후쿠자와는 난학을 핑계삼아 나가사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탈출한 후쿠자와는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난학에 정진했습니다.

그저 탈출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공부에 점차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후쿠자와는 난의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의 데키주쿠에서 5년 남짓한 서생 생활을 뒤로 하고,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1858년에 난학을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適塾

大阪大学の原点



<그림 4> 데키주쿠 전경

후쿠자와가 난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던 즈음, 막부 정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역 요구를 하러 왔던 이전까지의 서양 선박과 달리, 중무장한 함대가 일본 연안에 출현했던 것입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는 군함 4 척을 이끌고

나타나, 미일화친조약의 체결과 개항 및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의 친서를 소지했던 페리는 일본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무력행동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Perry M.C 1856) 당시 이미 아편전쟁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막부는 전쟁만은 피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1854 년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치지 않고 1858 년에는 추가 개항과 영사재판권, 협정 세율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호통상조약이 서양 5 개국과 체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막부는 나가사키와 요코하마, 하코다테까지 세 개의 항구를 개방했고,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었습니다.

후쿠자와가 처음으로 영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은 1859 년, 막 개항된 요코하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후쿠자와는 외국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가게의 간판이나 거리의 쪽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아는 글자라곤 없고, 영어인지 불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음에 낙담스러웠던 당시의 심정을 후쿠자와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제까지 몇 년이나 필사적으로 네덜란드어 서적읽기를 공부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정말로 쓸모없는 공부를 한 셈이로구나.”

난학에 입문한지 6 년만에 후쿠자와는 난학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일본이 개방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덜란드어가 유럽을 대표하는 언어였던 것과 무관하게 앞으로는 영어가 틀림없이 필요해질 것임을 내다본 것입니다. 후쿠자와는 난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영학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새로 또 고생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잠시, 각고의 노력 끝에 영란사전을 구해 무엇보다도 영어가 최우선이란 각오로 오로지 영문 학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영학자로서 내딛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번의 서양 체험

그 시기 막부는 조약의 후속 절차를 위해 구미에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 년, 첫 공식사절단은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후쿠자와는 함장의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였습니다. 6 개월이 채 되지 않던 짧은 여행이었지만, 후쿠자와로 하여금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뜨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양탄자, 마차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마주한 물건과 기술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로 새로워 그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자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워싱턴의 자손으로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집안에 시집갔다는 소문이 있다
하고 냉담하게 대답할 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물론 나도 미국이 공화국이고 대통령은 4 년마다 교체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워싱턴의 자손이라면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그런 반응을 보이니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과학문명에 관해서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에 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림 5> 워싱턴에서 견미사찰단(1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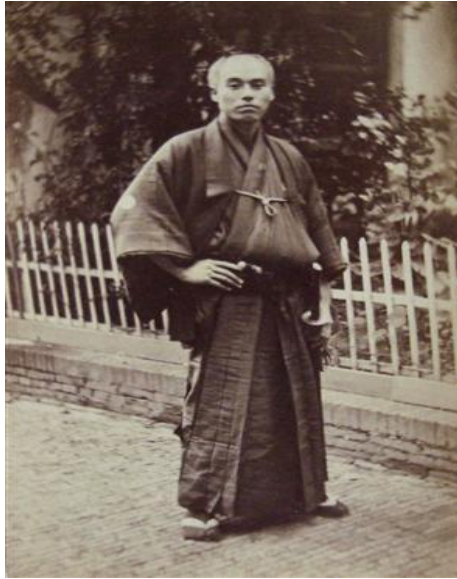
웹스터 사전 한 권을 사들고 미국에서 돌아온 후쿠자와는
이전처럼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생도들에게 더이상

난서를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영서만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후쿠자와는 영난 사전에 의지하여 영서를 배우듯 가르치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막부의 외무성에 고용돼 영국공사와 미국공사가 막부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은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이 막부의 외교문서를 열람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후쿠자와는 국제 사회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임종원 2011). 이어 후쿠자와는 1861 년에 파견된 견구사절단에 막부의 고용된 정식 통역관으로써 참여했습니다.

첫 구미 여행에서 후쿠자와가 봉건적인 일본 사회와는 상이한 미국의 문물과 풍속에 놀랐다면, 그는 두 번 째 구미 경험인 유럽 여행을 통해서 그 차이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즉,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그 문명을 만들어 낸 정신에서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었던 것 입니다.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일본에서도 원서를 읽고 사전을 뒤져서 알아낼 수 있기에, 후쿠자와는 그러한 학문적 지식 이외에 외국인에겐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라 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것들을 유럽 체류 중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증기기관의 원리나 인쇄술과 같은 원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차치하고, 병원의 유지비는 누가 어떤 식으로 내는지, 은행에서 돈의 출납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또 나라마다 다른 징병제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궁금해 한 것입니다.



<그림 6> 유럽 여행 중 후쿠자와 유키치(1862)(출처:keio.ac.jp)

체류 초반 후쿠자와는 런던, 파리 등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갖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배경을 몰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이센의 의회를 직접 방청하고, 의회 정치의 형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등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가길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그 내막을 이해하게 되고, 복잡한 사정은 열흘이 걸려서든 간신히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자와는

이를 유럽 순방의 성과로 꼽았으며, 그의 성과는 『서양 사정(西洋事情, 1866)』에 소상히 나타나 있습니다.

일찍부터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의문을 품었던 후쿠자와에게 두번의 구미체험은 유럽과 미국의 문명을 모델로 한 근대문명의 규범을 스스로 확립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이론의 성행

하지만 유럽에서 돌아와 마주한 국내의 사정은 후쿠자와가 경험하고 온 구미의 세상과 정 반대였습니다. 고메이 천황(孝明天皇, 1831-1866)이 1858년 서양 5개국과 체결한 통상조약의 추인을 거부한 것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존왕양이 운동이 절정에 달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을 오랑캐로 간주하여 일본 땅에서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이론자들은 개국이나 서구 문명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습니다. 곳곳에서 양학자들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후쿠자와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최대한 몸가짐을 조심했고, 오로지 저작과 번역에만 열중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양이론의 분위기가 고조될 수록, 양학을 향한 후쿠자와의 뜻은 확고하고 깊어져 갔습니다. 이는 후쿠자와가 1865년에 저술한 “당인왕래(唐人往來)”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상과 문명을 연결지은 후쿠자와는 당인 즉, 서구인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대륙별, 국가별 단계론을 제시하며 일본인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합중국(合衆國)으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을 하국(下國)으로 분류하였는데, 아시아는 중간 등급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자만을 일삼는 국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한 나라만을 가리켜 스스로 신국이라느니 떠들고, 세상과의 교류를 피해 홀로 칩거하면서 서양사람을 추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일본 내 팽배한 양이론을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이주의를 외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양학을 공부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화혼양재(和魂洋才)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을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쿠자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양의 근대 문명을 일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보았습니다. 더하여 그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과 핵심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후쿠자와가 난학에서 영학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차이가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이 아닌 그 문명의 바탕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것입니다.



〈그림 7〉 1 만엔에 실려있는 후쿠자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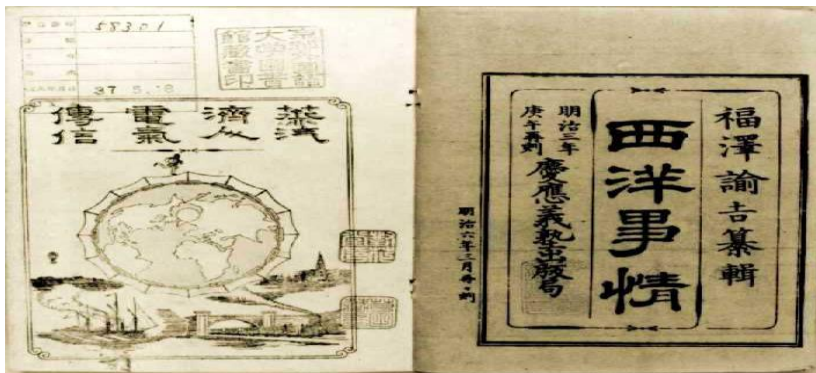
난학에서 영학으로의 전환

후쿠자와가 일본의 근세를 대표하는 계몽가이자 교육자, 근대화를 이끈 아버지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19 세기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후쿠자와는 화혼양재를 주장했던 다수의 양학자와도, 봉건적 전통을 탈피하고자 했던 메이지 유신 시기의 사상가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피상적인 기술 진보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의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자와는 독립을 위한 19 세기 일본의 길로 ‘문명’을 제시했고,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그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을 순서대로 짚으며 심상의 변화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후쿠자와의 대표적인 저서 3 부작 중 첫번 째인 『서양사정 (1866)』은 앞선 두 차례의 구미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서양

문물의 소개서입니다. 병원, 학교, 전신 등 서양 사회의 제도와 사회상, 이념 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미국,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서양 주요국의 역사와 군사제도, 재정출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쿠자와가 책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정치 풍속이었습니다.

초판 서론에서 그는 “서양의 여러 학문이 날로 열리고 다달이 밝아져 우리에게 이익이 크나, 오직 해외의 학문과 기예만을 강구할 뿐 각국이 정치풍속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설령 그 학문과 기예는 얻었을지언정 그 경국의 근본은 살피지 않는 것이기에 실용에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보다, 문명의 근본 즉 각국의 정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림 8> 『서양사정』 초판 표지(1866)

또한 그는 『서양사정』을 통해 외국의 대략적인 형세와 실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적으로 볼 것인지, 친구로 볼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혔습니다. 근대국가로서 일본의 길을 스스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후쿠자와는 국제사회내 네덜란드의 위상에 대해 17 세기 초 무역이 성대해졌다가 연이은 전쟁으로 명예를 잃었다고 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펼치는가 하면, 당시 잉글랜드가 번영하는 이유로 안정된 정치체제와 관대한 국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 ‘liberty’와 ‘right’을 각각 ‘자유’와 ‘통의’로 번역하고,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란 문구를 포함하는 미국독립선언서의 전문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후쿠자와는 서양의 정치와 문화는 어떠한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 근대사회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후쿠자와 스스로는 자신의 저작에 대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수입함과 동시에 나라의 오랜 폐습을 제거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문명의 한 부분을 조금씩 잘라 판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이 단순히 서양문물을 수입, 판매하는 중개상과 같은 역할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본의 봉건 문벌체제를 넘어 문명사회를 향해 가고자하는 그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성희엽 2020).

하지만 근대 문명의 표준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 어느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하영선 2019). 이러한 그의 고민은 1867 년 세 번 째 구미 체험을 이후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후쿠자와가 양학 중에서도 영학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저작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쿠자와는 1869 년 『영국의사회담(英國議事院談)』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를 상세히 소개한 단독 저작물은 영국이 유일합니다. 그는 책에서 영국 의회가 군주정, 귀족정, 서민정 세가지의 정치 체계가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타국의 정치체제와 비교해 더욱 정돈된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이 의원내각제란 탁월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서양사정 초편이 간행된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양이론이 들끓었지만, 1867 년 후쿠자와는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과격한 양이론자들로 인해 전쟁의 위험이 도사렸음에도 후쿠자와는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대신 경제서를 비롯해 만국사, 영국사, 지리, 법률 등에 관한 원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돌아왔습니다.

막부의 양이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후쿠자와는 ‘어떻게든 양학이 성행하도록 해서 반드시 일본을 서양과 같은 문명 부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양이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설립한 양학숙, 게이오기주쿠의 학생들을

격려하며 했던 말에는 서양 세계에 대한 그의 박학한 이해와 문명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침략을 받은 네덜란드는 본국은 물론이고 인도 지역까지 모두 점령당해 국기를 게양할 곳이 없어졌지만, 전세계에 단 한 곳만 남아 있었다. 바로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이다.

데지마는 예전부터 네덜란드인의 거류지로, 유럽 전쟁의 영향도 일본에는 미치지 않아 데지마의 국기는 항상 하늘 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왕국은 단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네덜란드인들은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보면 게이오기주쿠는 일본의 양학을 위해 네덜란드의 데지마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온갖 소동이나 난리에도 불구하고 양학의 명맥을 굳게 지켜왔다. 게이오기주쿠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 주쿠가 건재하는 한 대일본은 세계 속의 문명국이라 할 수 있다. 긍지를 가져라.”



<그림 9> 게이오 대학 내 후쿠자와의 흉상

칼을 버리고 서양을 공부하다, 후쿠자와의 ‘문명론’

『서양사정』과 함께 대표적인 3 부작으로 꼽히는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 1872)』와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 1875)』에는 후쿠자와의 문명사관이 매우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작들이 주로 번역을 통해 서구의 근대사회와 그 문명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학문의 권유』와 『문명론개략』은 후쿠자와가 자신만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민중에게 전달하려했던 본격적인 계몽서입니다(임종원 2011).

후쿠자와는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라는 문장으로 『학문의 권유』 초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천적으로 차별이 없는 사람간 귀천과 빈부의 차별이 생기는 것은 오로지 학문의 유무라고 설명하며 민중들을 학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봉건 시대의 허학이 아닌 실용, 활용의 학문임을 강조하는 후쿠자와는 서양의 문명사회가 자본주의를 통해 변형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경제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는 만큼, 국가의 독립과 사회의 발전에 금전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한 것입니다.

『문명론 개략』 전반에 걸쳐 후쿠자와는 ‘일본의 당면 과제이자 목적은 나라의 독립이고, 문명은 그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일본의 문명이 서구에 비해 뒤쳐진 이유가 봉건시대의 가치 체계와 풍속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후쿠자와는 서구 문명의 핵심이 ‘개인의 자유’에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 여전히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서구 국가, 그 중에서도 영국이 부상하는 이유를 그 문명에서 찾아내고, 문명의 핵심 정신을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10> 미타연설관 내부와 후쿠자와의 사진

(출처: keio.ac.jp)

서구 문명의 핵심인 자유의 기풍은 다사쟁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 후쿠자와는 서구의 문명 정신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speech 문화, 대중연설을 최초로 일본에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토론의 형식을 빌려 반대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874 년 후쿠자와는 게이오 의식 내에 ‘미타연설관(三田演説館)’을 건립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등 민중 계몽에 앞장 섰습니다.

나가며

일본의 근세를 대표하는 인물로 1 만엔에 실려 있는 후쿠자와는 19 세기 일본의 길을 먼저 걸었던 계몽가이자 교육자이며 누구보다 뛰어난 사상가였습니다. 보다 앞서 근대 국가체제로 들어선 서구 열강간 힘의 각축전 속에서, 후쿠자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깥으로 ‘자주 독립’을 그리고 안으로는 ‘민중 개인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17-19 세기 서구를 향한 유일한 창문이던 데지마에서 시작하여, 영학으로의 전환과 문명론을 주창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에 이르러 완성된 것입니다.

참고 문헌

1 차 자료

후쿠자와 유키치. 2004. 『학문을 권함(學問のすすめ)』. 양문송 역.

서울:일송미디어

_____. 2006. 『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福翁自傳)』. 히호 역.

서울:이산.

_____. 2020. 『문명론 개략(文明論之概略)』. 성희엽 역. 서울:소명출판

_____. 2021. 『서양사정(西洋事情)』, 송경호 외 역.

파주:여문책

Perry, M.C. 1856.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a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 by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utch-Japanese relations. 홈페이지

<https://www.netherlandsandyou.nl/your-country-and-the-netherlands/japan/and-the-netherlands/dutch-japanese-relations> (검색일: 2022.05.14)

2 차자료

가. 단행본

성희엽. 2018. 『조용한 혁명: 메이지유신과 근대적 지식인의 탄생』. 서울:
소명출판 2016

임종원. 2011. 『후쿠자와 유키치:새로운 문명의 논리』. 파주:한길사

하영선. 2019.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서울:한울아카데미

나. 학술논문

강태운. 2019. 후쿠자와 유키치의 초기 사상과 자유민권운동:

〈〈학자안심론〉〉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0, 35-58.

방광석. 2017. 메이지유신 시기의 서양체험과 입헌제 수용. 역사와
담론, 84, 287-313.

- 서태열 외 1. 2020. 19 세기 지리교과서에 담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수용과 변용:스코틀랜드-미국-일본-한국.
한국지리학회지, 9(3), 491-518.
- 이건상. 2014. 근세 일본의 관학과 양학. 한일어문논집, 18, 215-
230
- 하우붕. 2012. 18 세기 일본사상의 전개양상과 성격. 역사학보.
213(), 155-179.
- Fuyuko, M., & Clulow, A. 2011. King Willem II's 1844
Letter to the Shogun "Recommendation to Open the
Country." *Monumenta Nipponica*, 66(1), 99-122.
<http://www.jstor.org/stable/41303083>

첨단기술과 미중 전략경쟁 : 통합억지와 지능화전쟁 _사세보 해군기지

최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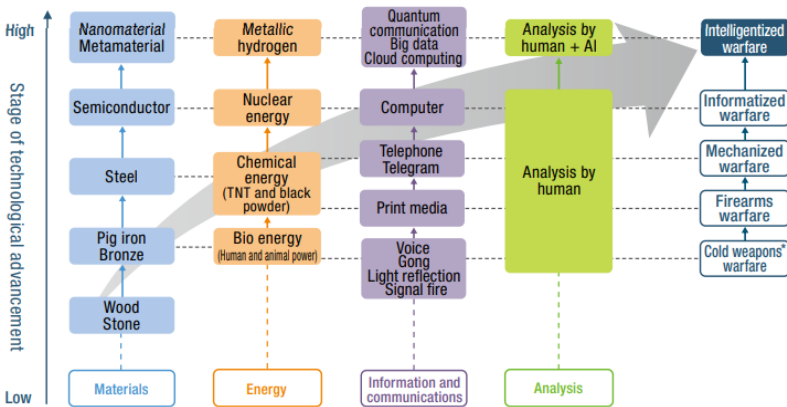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대학원

들어가며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체계(AS, autonomous system)의 등장은 군사분야에서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변화는 대개 전장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 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전쟁을 기계중심 전쟁으로 변화시켰고, 20 세기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은 각각의 전장 플랫폼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체계 중심의 정보화 전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은 인공지능과 자율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이를 적절히 운용할 개념이 정립되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는 전략폭격의 개념이 등장 하고서야 주요 전력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차는 전격전의 개념이 확립 되고서야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운용 개념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진화 관계



출처: Yatsuzuka Masaaki et al. 2021.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1.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존의 군사, 경제적인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까지 전략경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그러한 분야 중 새로이 주목받는 분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인 두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전장은 어떻게, 이를 위해 어떤 운용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

2022 년 2 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 국가안보전략(NSS)는 한 차례 연기되어 늦은 가을 10 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만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5 년전 트럼프 행정부와 구별되는 뚜렷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The PRC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do it(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5 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안보 전략의 초점을 옮긴 것이라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의 힘과 의지를 갖춘 국가라고 인정하며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안보 전략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의 안보인식 하에서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국내 역량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10 년을 미국의 핵심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이길수 있는 미국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기에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에는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미 국방전략은 1. 본토방어, 2.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 3. 침략 억제 및 분쟁 발생 시 압도, 4. 탄력적인 합동군과 국방 생태계 구축을 4 대 핵심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3 대 추진 방향으로 1.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2. 전역화(campaigning), 3. 지속적 우위의 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개념으로 등장한 통합억지는 해당 문서에서 처음 문서화되어 드러났지만 앞서 많은 연설이나 언급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우선 지난 2021 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 연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로이드 국방장관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기술공유를 기반한 체계 속에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합역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래의 여러 도메인, 즉 핵, 사이버, 우주, 정보 분야에 걸쳐 통합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전장, 영역에서의 통합을 통해 억제력을 구축하고 효용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국과의 전략경쟁 및 잠재적 분쟁에서부터 고강도 회색지대 분쟁까지의 분쟁수준에서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통합억제를 이행하는 기제로 미국의 모든 사용 가능한 역량을 망라, 통합하여 군사 충돌과 비군사적 하이브리드 등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역, 즉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동맹국 간 협력과 연동, 네트워크 구축, 상호운용성의 증진, 군수, 정보, 기술 분야 등의 통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전 지구를 하나의 통합 전구화 하여 전력투사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통합역지라는 새로운 안보전략 개념의 등장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특히 무력-군사적 분쟁으로 규정하기 힘든 회색지대 영역에서의 경쟁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과 평화를 이분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다차원적-다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비,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의 통합을 강조하며, 이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능화 전쟁(Intelligence Warfare)

중국의 지능화 전쟁 개념은 미국의 통합 역지 개념보다 일찍 등장한 개념입니다. 2019 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 군사 개념은 인간 인식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군사 개념으로, 재래식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19 년 7 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방백서를 통해 전쟁의 형태가 정보화전쟁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능화 전쟁이 임박했음을 밝히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능화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이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무기와 장비를 이용해 육지, 해상,

공중, 우주, 전자전, 사이버, 인지 영역에서 벌어지는 통합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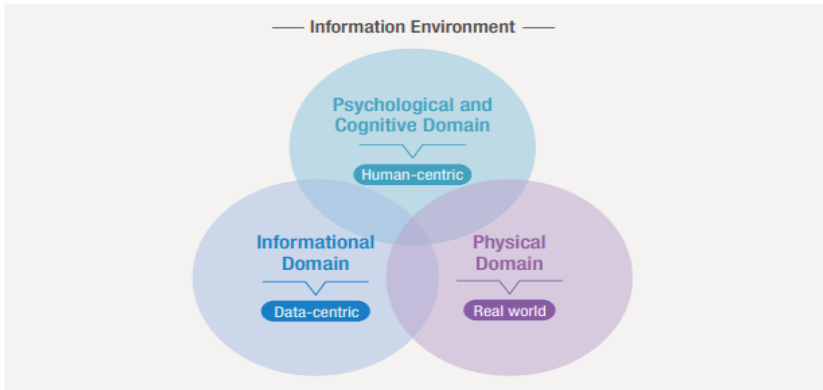
중국의 연구자들은 지능화전쟁을 특히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분석에서는 인지영역에 대한 언급보다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전단계 활용 확대정도로만 규정하면서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능화 전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4 년부터 제 3 차 오프셋 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을 통해 인공지능과 자율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 중심 운영, 신속한 의사결정, 정보처리 능력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억지의 실현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지능화 전쟁은 많은 부분 미국과 닮은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능화 전쟁은 물리적, 정보 영역 다음으로 인지 영역을 다음의 중요한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인식처럼 전쟁의 전통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기 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혀 새로운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능화 전쟁의 핵심 작전 개념을 적의 의지를 직접 통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 의회 의원, 전투 지휘관등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시민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능 우세(intelligence superiority) 혹은 제지능권(command of intelligence)은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장에서의 활용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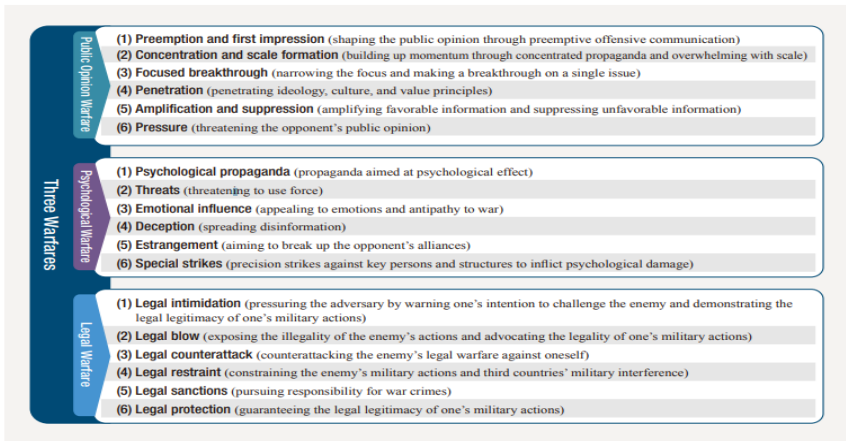
〈그림 2〉 정보환경



출처: Yamaguchi Shinji et al. 2023.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3.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인지전은 국내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전(public opinion warfare), 적군과 민간인의 충격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국제법과 국내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법정전(legal warfare), 총 3 개의 전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육지, 해상, 공중, 우주 등의 물리적 영역과 사이버, 전자와 같은 정보의 영역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와 여론으로 구성된 인간의 인식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중국 연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인지영역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3〉 인지전 종류에 따른 전술



출처: Yamaguchi Shinji et al. 2023.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3.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3 가지 인지전은 그림 3 에 나타난 종류의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군사적 수단의 사용과 위협과 연계하여 3 가지 전쟁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가지 종류의 인지전은 지능화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군사적 수단과 분리하여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전은 정보화된 전쟁에서 정치적 작업의 중심 요소로 간주되며 합동 작전과 결합할 때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인지전은 군사력을 단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군사력이 항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체계의 등장으로 전장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 미국과 중국은 미래 전장의 모습을 꿈꾸며 자신들의 전략에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식하면서도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한 전지구적 단위의 전역화를, 중국은 새로운 인지영역에서의 상대의 전쟁의지 통제를 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전은 정보화 전쟁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의 활용처를 찾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능화 전쟁 개념보다 근시안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면 중국의 아이디어는 인지영역이라는 인간의 인식 영역을 새로운 전장의 영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억지 개념 역시 상대의 의지를 단념시켜 상대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국 통합억지와 지능화전쟁, 두 개념 모두 경쟁의 끝에선 재래식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이러니 하고도 낙관적인 생각을 끝으로, 두 국가의 비전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문헌

박원곤. 202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통합억제와 전세계 대비태세. 한국국가전략 제 9 호. pp.29-58.

박창희. 2021.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전쟁: 제지능권 개념과 지능우세 달성 방안. 국방정책연구 133 호. pp. 105-131.

Anthony H. Cordesman. 2019. China's New 2019 Defense White Paper: An Open Strategic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But One Which Does Not Have to Lead to Conflict. CSIS.

Colin Khal. 2021. Carnegie International Nuclear Policy Conference

- Jesse Ellman et al. 2017.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CSIS.
- Lloyd J. Austin. 2021. Secretary of Defense Remarks for the U.S INDOPACOM Change of Command.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ticle/2592154/secretary-of-defense-remarks-for-the-us-indopacom-change-of-command/>
- _____. 2021. Remarks at the Shangri-La Dialogue by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3059852/remarks-at-the-shangri-la-dialogue-by-secretary-of-defense-lloyd-j-austin-iii-a/>
- Lora Saalman. 2020. The Impact of AI on Nuclear Deterrence: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East-West Center
- Takagi Koichiro. 2022. The future of China's cognitive warfare: lessons from the war in Ukraine. War on the Rocks.
- _____. 2022. New tech, new concepts: China's plans for AI and cognitive warfare. War on the Rocks.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 _____. 2022.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of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_____. 2022. U.S Indo-Pacific Strategy

_____.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Yamaguchi Shinji et al. 2023.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3.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Yatsuzuka Masaaki et al. 2021.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1.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Yatsuzuka Masaaki. 2022. PLA's Intelligentized Warfare: The
Politics on China's Milit

조선-일본 관계에 있어 대마도의 역할 _한일교류박물관

김유진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16~17 세기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조선과 일본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두 국가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시점은 1592 년 임진왜란 시기였다. 일본은 점차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천하질서관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변화한 힘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중화(小中華)’를 추구하며 기존의 천하질서관을 계승하려 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걷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낮추어 볼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된 양국의 크고 작은 갈등은 어쩌면 이 시기부터 이미 예견된 것인지 모른다.

이렇듯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중재했던 것은 대마도였다. 근대적 개념의 국가 단위로 보면, 일본에 속한 하나의 섬에 불과한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모두로부터 관직을 받고 양국의 교류를 독점적으로 주도한 당시의 통교체제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영토 개념에는 경계의 안과 밖이라는 양의성(兩義性) 내지 양속성(兩屬性)이 있다. (하우봉 2013, 216) 이때 그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존재가 중요한데,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대마도가 이러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전국시대가 종결되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에도 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일본의 국가 통합력은 미약하였다. 덕분에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경계 영역에 위치해 조선에게 종속되지 않고, 일본에게도 반독립적인 성격을 띠며 양국의 중재자로서 활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일관계사 연구에 있어 대마도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답사보고서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대마도의 매개적 역할에 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마도라는 매개적 존재를 조선과 일본이 필요로 한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진왜란 직후 기유약조의 체결에 크게 기여한 대마도의 국서조작 사건에 집중해 조선과 일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기존 연구에 있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한일관계사’로 명명되어 근대적 개념의 국가수준에서 양자적 틀을 통해 연구되었다. 이 때문에 근세적 외교체제에서 대마도가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연구는 통신사나 왜관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사 연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장순순 2013. 16)

조일관계에 있어 대마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동북아역사논총 제 41 호에 실린 하우봉, 민덕기, 홍성덕의 논문이 있다. 하우봉(2013)은 고종세 시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대마도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인식 변화를 탐구하였다. 여기서 조선의 대마도 인식은 대마도가 예부터 우리 땅이었다고 믿는 대마고토의식, 대마도가 조선의 동쪽 경계라 여기는 대마변병의식, 대마도를 일본 본토와 다르다고 보는 대마구분의식으로 구분된다. 고려 시기 대마도와의 조공관계와 조선 세종 시기 대마도 정벌은 대마고토의식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이후 대마도가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하나 정치적으로는 조선에 속한다고 보면서 대마변병의식과 대마구분의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국가통합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외교일원화 조치에 따라 일본 본토와 대마도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민덕기(2013)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전, 도중,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대마도의 조선 교섭 노력에 대해 탐구하였다. 여기서 대마도의 이러한 노력이 일본 본토가 아닌 대마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며,

조선에 대한 독점적 무역권을 유지하고 군사를 징발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예측했음에도, 대내적 위신을 지키며 조선에 강화요청을 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다.

대마도 국서조작사건의 전개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은 Toby(1991)와 Lewis(2003)이다. 다만 Toby(1991)의 경우 국서조작의 주체가 대마도주 소 요시토리와 외교자문 겐조라고 상정하였으며, Lewis(2003)의 경우 국서조작의 주체가 대마도주 소씨 가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라고 전제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조일관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지, 국가와 지역의 관계인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 학계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 측의 연구자들은 ‘야나가와 잇켄(대마도 국서조작사건)’까지의 대조선외교를 대마도의 독자행동으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 측의 연구자들은 에도막부의 실권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덕 2013, 138)

다만 근본적으로 대마도가 어쩌서 그런 매개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해당 역할에 바탕한 대마도의 도덕적 해이를 조선와 일본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통해 묵인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답사보고서는 대마도의 매개적 역할의 근원을 지리적 이점과 왜구 문제에서 찾고, 대마도 국서조작사건의 처리를 상세히 살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보고서는 조선 측 핵심 자료인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일본 측 핵심자료인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을 중심으로 대마도 국서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대마도, 조선, 일본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다. 이때 분석에 있어 이용희의 시대구분상 제 3 기의 조선과 일본의 심상을 참고한다. 또한 G.McCune, R.Toby, J.B.Lewis 등 제 3 자의 시각에서 서술된 2 차 자료들을 참고해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대마도의 매개적 역할의 조성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교류를 매개하는 통교체제는 ① 교통을 고려한 지리적 이점과 ② 왜구 문제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약 49.5km, 일본 본토(규슈)에서 약 82km 떨어져 있다(다만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은 약 47.5km 떨어져 있음). 이러한 대마도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천하질서의 변경에 위치해 조선을 매개로 중국과 교류하려 노력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교류에도 대마도라는 매개자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직접 사신을 주고받으며 교류해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 조선으로 하여금 대마도의 매개적 역할을 수용하도록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려면 육로 교통과 해로 교통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통신사 사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양~넛코(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이 있는 곳)의 거리는 약 2,000km 로, 이동기간은 편도로 10~12 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동아일보 2014) 반면에 조선과 명·청의 사신들이 오간 한양과 중국 베이징 사이의 거리는 약 1,500km 로, 이동기간은 편도로 3 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넛코와 서울~베이징의 거리가 약 1.3 배 차이에 불과함에도 이동기간은 3~4 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해로와 육로의 차이 때문이다. 명이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17 세기 후금에 의해 요동 지역이 막히기 전까지, 명과 조선의 사신은 육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그러나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해로, 강로, 육로를 거쳐야했다. 이때 해로가 육로보다 길었으며, 사행선 침몰, 익사 등의 위험이 컸다. (허경진 2009. 72) 이는 통신사행록 해행총재 중 하나인 김세렴의 해사록에도 잘 드러나 있다.

백여 리를 가니 북풍이 동풍으로 바뀌어, 물마루(水宗)에 이르자 바람의 기세가 더욱 사나워졌다. 파도가 산처럼 드높아 몹시 흔들리는데, 올라가면 하늘에 오르는 듯하고 내려가면 땅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다른 배를 바라보니, 떠오르면 판자 밑이 드러나고 가라앉으면 돛대 끝이 보일

뿐이다. 배 안의 사람이 모두 어지러워 넘어지며 토하고 격군도 노 사이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중략) 평성춘 등이 물결에 떠돌아 간 곳이 없으므로 왜인들이 근심하였다. 상사가 탄 배의 뱃전이 물결에 꺾이고, 배 안의 소주병·꿀병이 서로 부딪쳐서 모두 깨졌다. 처음으로 바닷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고약한 바람을 만나 거의 뒤집힐 뻔하다가 언덕에 닿으니, 사람마다 다시 살아났음을 축하하였다.

이처럼 해로이동시 날씨와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정박지에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매개자를 두지 않던 조선의 입장에서도 대마도를 통해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마도가 조일관계의 ‘매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데에는 왜구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대마도가 한반도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2세기 후반 고려 시기이다. 통일신라가 일본과 가까이 지내던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반도와 일본 사이 교역이 완전히 끊겼고, 이 영향은 고려 시기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마도는 한반도와 표류민 교환을 시작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와 일본 서부 지역 간의 교역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교역을 ‘진봉선 무역(進奉船貿易)’이라 하는데, 조공무역으로서 외교의례의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교역체제였다. 고려와 일본 간에 공식적 국교가 없었는데도 대마도가 진봉선 무역으로 고려와 교역을 이어간 점, 대마도주가 고려 관직을 받았다는 점에서 진봉선 무역은 대마도의 반독립성의 상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우봉 2013, 221)

그러나 원(元)이 고려를 침략해 고려와 원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면서, 진봉선 무역체제는 중단되고 만다. 교역통로를 상실한 대마도인은 왜구로 변하였다. 대마도의 경제구조는 적은 인구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으로 인해 교역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Toby

통신사의 행로



1991. 26) 왜구는 특정 계절마다 한반도 남부지역을 침략하고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며 고려의 존부를 위협하였다. 고려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았음에도 왜구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보낸 기록도 남아있으며, 당시 일본 막부 또한 왜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려가 멸망하고 들어선 조선은 초기부터 왜구 문제를 관리해 남쪽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으로 1419년 세종이 왜구 근거지 척결을 위해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한 바 있다. 조선의 적극적인 왜구 관리 정책은 잔인한 해적들을 교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는 조선의 왜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82회에 걸쳐 조선과 통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마도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하우봉 2013. 225) 즉, 조선과 일본은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자립이 어려운 대마도에게 ‘외교적 매개자’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골치 아픈 왜구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대마도 국서조작 사건

임진왜란 이전의 대마도는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를 어떻게 희석시켜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지

고민하였다. 실제로 1587년에는 대마도주 소 요시시게가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공물을 진상하였고,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조선을 침략하는 대신 조선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방안을 히데요시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히데요시의 침략 결정 유예를 받아냈지만, 조선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후 교섭도 결렬되자 히데요시는 현재 한일교류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나고야성의 축조를 규슈의 다이묘들에게 명령하였다. 1592년 나고야성에서 16만의 일본군이 조선으로 출병하면서, 대마도가 막고자 했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만다.

임진왜란 이후의 대마도는 단절된 관계를 통신사 파견을 통해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공식적인 일본의 강화교섭 노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598년 대마도주에게 조선과의 교류를 재개하도록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는 조선에게 피로인을 송환하며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명의 반대를 핑계로 이를 거부한다.

대마도의 국서조작은 이렇듯 조일 강화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교섭요구를 거부해온 조선은 1606년 마침내 일본의 국교 재개 요구에 대해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일본 국왕’이라고 칭하는 공식적인 정부 문서를 보내 통신사를 요청할 것, 둘째는 성종과 중종 등 왕실 무덤을 도굴한 일본군을 인도할

것이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암시를 줄 수 있고, ‘일본 국왕’이라는 표현은 중국에 의해 책봉된 국왕을 의미하므로 일본이 이들 요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와 외교 자문 겐조는 ‘일본 국왕’이라고 적힌 서한을 위조하고 도굴범 대역을 조선에 함께 보낸다. (Toby 1991. 31) 다만 이를 주도한 것이 소씨 가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키라는 주장도 있다. (Lewis 2003)

이로 인해 조선의 회답겸쇄환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국서조작이 들킬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한 차례 더 서한을 위조한다. 원래 조선이 가져온 서한의 내용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선왕의 능묘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한 하늘 아래서 살지 못할 정도지만, 귀국이 위문편지를 보내어 잘못을 고쳤다고 하니 이렇게 후의에 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답신을 의미하는 ‘봉복’이라는 표현을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가 쓰는 ‘봉서’로 수정하고, ‘조선이 화교를 먼저 요청한다’고 고쳐썼다. (동아일보 2015)

이처럼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에 필사적이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마도의 교역 의존적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내 정치적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의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다이묘들의 권력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고 만다. 장인의 편에 섰던

요시토시는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자 숙청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부인인 고니시 마리아와 이혼을 감행하기까지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요시토시는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원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성공시켜 이에야스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을 가능성이 높다. 선조실록에도 대마도주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유키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했기 때문에 조선과의 통교를 반드시 성공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하들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평조신(平調信)·평의지(平義智)는 모두 가강의 세력안에 있는 신하로서 속히 우리 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가강에게 환심을 살 터전을 삼기 위해서인데 신축년 이래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애걸도 하고 공갈도 하며 벼라별 작태를 다하다가 평조신이 죽은 뒤에는 더욱 줄기차게 그 흥독을 드러내면서 공갈 협박으로 몰아 부칩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 분명하고 일본에서 관여하여 아는 바는 아닐 듯싶습니다.

조선의 좌의정 심희수도 대마도가 부탁과 공갈을 병행하고 국서를 조작해서라도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이며, 에도 막부의 뜻이 아닐 것이라 짐작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지 않는 한 조선과 대마도의 교역이 금지되었던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을 향한 대마도의 노력에 조선은 1604년 ‘조선에 대한 대마도의 노력이 칭찬할 만하므로 일본과 차별하여 대마도와의 교류를 단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때 부산에서의 교역을 대마도에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 본토에 파견되지 않는 한 이에야스가 대마도의 교역 추진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대마도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했다.

조선이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마도의 국서조작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강화교섭을 하게 되었다. 이는 현행 국제법에서도 조약무효사유 중 ‘기만’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특히 조선의 입장에서 신하라고 여겼던 대마도주가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 임진왜란의 선봉에 선데다, 선왕의 묘를 도굴한 범인들을 거짓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대마도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심상은 국서조작으로 체결된 기유약조에서 대마도의 세전선을 감축하고 서울 상경을 금지하는 징벌을 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은 대마도가 보낸 서한이 명력(明曆)을 사용하고 있는 점, 중화를 거부하지 않는 논조가 담긴 점, 도굴범으로 보내진 대역들이 지나치게 어린 점으로 인해 서한이 위조되었음을 눈치챘다. (Toby 1991. 31)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천하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러한 단서를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이은 또다른 침략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고, 대마도를 낮추어 보는 인식에 기반해 대마도의 국서조작 노력을 묵인할 수 있는 명분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선조실록에 담긴 이 문제의 처리를 논의하는 선조와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이 물러가고 강토를 회복한지 이미 8~9 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방을 둘러보면 정벌할 준비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게을리 시간만 허송하는 것이 신묘년 이전보다 더욱 심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 적이 우리 나라에 방비가 없음을 엿보아 알고는 더욱 함부로 능모(凌侮)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사세가 이에 이르러 조절하는 권한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비록 가강(도쿠가와 이에야스)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위한 계책으로 우선 그들과 통호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략) 눈물을 흘리며 딸을 오(吳)나라에

시집보내는 계책을 금일에 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아,
가슴이 아픕니다.

좌의정 심희수의 말에서 조선이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조선을
‘능모’하는 행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 부족한
군사력과 일본에게 넘어간 ‘조절하는 권한’으로 인해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불가피함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희수의
추론은 전후 대마도가 전쟁을 후회하는 서계와 조선인 포로를
바치며 일본 본토의 뜻이라고 전했음에도 단 하나의 신임장도
없었다는 점에도 근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희수는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의심하면서도, 대마도 측에는 중국에 고해 처리하겠다고
시간을 끌며 그들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저 이적(夷狄)은 금수라서 제왕(帝王)이 그들을 대함에
있어 늘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법인데 이것이
어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한번 화호(和好)를
잃게 되면 사납게 무기를 잡고 나아와 우리의 백만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크게는
종묘 사직의 안위에 관계되고 작게는 수십 년 동안 병란이
계속될 것이니, 그 사이의 일이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제 압송하여 돌려보내고 진범이 아니라고 꾸짖으면서 곧장 노여워하는 빛을 노출한다면 굴지정이 과연 그렇다고 자복(自服)하겠는가, 아니면 태연하게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다른 적을 결박하여 와서 바치겠는가? 반드시 떠들썩하게 일어나 큰소리만 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힐문을 할 경우 그 뒤에는 굴지정을 어떻게 대우할 수도 없고, 회답사 역시 건너갈 수 없을 것이어서 많은 난처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왜적이 능적을 결박하여 바친다는 것으로 이미 명분을 삼았으니, 금수와 더불어 허실을 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려 죽이기만 하고 헌부례(獻俘禮)는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 기만을 당했어도 혐의도 없을 것은 물론 적의한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잘 헤아려서 조치해야 될 것이다.

왕릉 도굴범의 처리에 대한 선조의 말을 보면, 대마도와 일본을 오랑캐이자 금수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며 조선이 ‘제왕’으로서 이들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이용희의 한일관계사 시기 구분상 제 3기에 해당되며, 일본과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멸시와 침략당한 굴욕감이 잘 드러난다. 또한 대마도에게 국서조작에 대해 다그칠 경우 대마도와 일본의 군사적 압박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대마도의 국서조작과 가짜 도굴범 압송을 조선의 평화 유지를 위한 일종의 명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은 세키가하라 전투에 관한 소식을 대마도로부터 듣고 일본 에도막부가 대외 팽창보다는 대내적 안정을 우선시하리라 생각했고, 조선이 국교 재개에 응한다면 무력갈등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Toby 1991. 27)

일본이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본 에도막부의 입장에서조차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조건들을 조선에 대해 수용한 것이니 대마도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또한 대마도 국서조작 사건을 묵인하고 대마도에게 외교적 역할을 한번 더 맡기는, 일견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국교 재개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에도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있어 조선과의 관계 회복은 히데요시의 실패한 전쟁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자, 일본 내 남아있는 반대세력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보일 수 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야스는 대내적 위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선에 공식적으로 강화 요청을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에야스는 기존처럼 대마도가 강화교섭을 중재할 것을 명령했다. 대마도 또한 조선에 강화 요청을 할 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들으니, 가강(도쿠가와 이에야스)은 일찍이 한 군사도 바다를 건너보내지 않았고, 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소위와는 모든 것을 반대로 한다고 하는 데이쥬습니까.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빠르게 알아챈 조선과 달리, 일본은 이후 야나가와 부젠 시게오키가 일본과 조선의 통교에 사도가 있다고 막부에 소송하면서 알게 된다. 1609 년 기유약조로 국교가 재개되고 22 년이 지난 1631 년 일어난 이 소송은 ‘야나가와 잇켄’이라고 불리며, 국서조작을 주도한 소 요시토시의 뒤를 이어 대마도주가 된 소 요시노리와 야나가와 부젠 시게오키 간의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과정은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30 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를 불러서 명하시기를, “이 잇켄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을 오고가는 배의 도항을 중지하게 되면 조선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니, 양쪽에서 사자를 1 명씩 보내 조선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쇼군의 뜻이다.”라고 하셨다.

일본 에도막부는 조선이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집권세력이 야나가와 잇켄을 고려해 조선과의 도항을 중지한 것은 대마도 국서조작을 조선에 알리는 것을 주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 양해의 서한을 보낸 것은 국서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송 과정에서 소 요시나리는 국서 개찬이 자신의 선대인 소 요시토시 시기의 일이며, 자신은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에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 가신인 야나가와 가문이 조선과의 통교 실무를 맡았기에 국서조작을 자의적으로 주도하였으리라 주장하였다. 반면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대마도주 소씨 가문이 국서를 위조해 온지 오래되었으며,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Toby(1991)와 Lewis(2003)도 어느 쪽이 국서 조작의 주체였느냐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고 있기에, 누가 진범이었는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송 자체에서는 요시나리가 승리하고, 시게오키는 처벌받았다. 이는 요시나리가 소송이 끝난 후 조선 측에 보낸 서계에서 잘 드러난다.

근년 부젠이 불의(不義)를 획책하고 주종(主從)의 도(道)를 어겼으며
게다가 조선통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상실했습니다. (중략)
에도 성에서 재판한 결과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섬(대마도)에 대한 지배권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조선통교를 관장하는 일도 예전대로 수행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부젠은 조선과 관련해서 제멋대로 저지른 잘못이 많아, 멀리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중략) 엄밀하게 조사하여 시종일관 잘 마무리되었고, 조선과 관련된 사안도 변한 것이 없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 사송선(使送船)을 보내서 일본-조선의 통교를 전처럼 추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선도 성신(誠信)의 도(道)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사에 경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마도주 소씨 가문은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의 외교를 담당하는 특수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에 관련자들을 대질신문한 상세한 기록이 있으나, 대마도주 가문이 국서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만큼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야나가와 잇켄의 결과는 일본 집권세력의 정치적 결정의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도막부는 교토의 승려들을 대마도에 보내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Lewis 2003, 22) 국서조작 사건으로부터 이미 20 년가량이 지나 조선과의 관계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조선과의 국교를 담당해 전문성을 갖춘 소씨 가문의 필요성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 패소해 국서조작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된

시게오키가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복자살이 아닌 유배형을 받게된 것 또한 잇켄이 정치적 고려 하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에도막부가 조선과의 안정된 통교를 원했던 것이 조선의 의도대로 천하질서에 순응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잇켄 이후 조선에 다녀온 사절이 쇼군과의 질의응답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구상서에 따르면, 일본의 자주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여럿 있다.

조선이 “일본의 쇼군을 이번 서한에 ‘대군(大君)’이라고 칭한 것은 이름(御名)을 의미하는가? 직위(御位)를 의미하는가? 예전에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 대군(大君)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고, 이전에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쇼군을 대군이라고 쓰시마노카미가 쓰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시마노카미가 무지하기는 하나, 국서를 작성하는 승려들이 그런 것을 틀리게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아시는 대로 귀국과의 통교에서 야나가와 부젠이 중간에 쓰시마노카미 모르게 사사롭게 처리한 일이 많았는데, 국서 담당자들과 부하들도 이번에는 쓰시마노카미가 특별히 신경 썼으니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과 달리 서계에 연호(年號)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연유인가”라고 하면, 전에 연호를 기재한 건 쓰시마노카미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중국의 부하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천자(天子)가 있고 관와이름·연호도 그대로여서 이국(異國)의 연호를 적지 않습니다. 설령 조선과 쓰시마노카미가 통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의 도(道)에 어긋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내용은 국서조작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존에 원했던 ‘대군’이라는 호칭을 고집하고, 명의 연호가 아닌 일본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천하질서의 변경에 있던 일본이 점차 천하질서의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의 반응 또한 흥미롭다. 조선은 일본 측에 자신들이 대마도의 국서조작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관계에 수정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잇켄의 결과가 대마도주의 가문에 유리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막부의 입장에 동의하였다.

조선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부젠이 사사롭게 언급하여 행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런 일에 관해 조선에서도

부젠이 모든 일을 쓰시마노카미에게 알리지 않고 수년간 사사롭게 처리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전 일을 현재의 쓰시마노카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도 조선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략) 단 말하기를, “천하에 주인을 적으로 삼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에게 좋은 일은 없다. 쓰시마노카미의 부하가 야나가와라는 것은 이국도 알고 있다. 주인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부젠이 이처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보초로에 관해서는 “부젠에 동의했으므로 이 또한 도리에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조선과 일본은 서로가 천하질서예의 순응과 탈피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졌음을 인식했음에도 실리를 위해 국교를 이어가기를 택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마도 국서조작사건의 처리에 대한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빠르게 통신사의 일본 왕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작년에 로주께서 서한을 보내, 조선에 보내는 서계를 이번에는 우선 쓰시마노카미가 조처하라고 하시어 막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다. 이번 답서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

이것을 말씀드리고서 통신사를 요청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전하면 통신사가 지체될 터이니 서둘러 요청한다.

통신사를 요청하는 사신에 관해 만약 질문하시면 “순풍을 기다려 도해할 것입니다.”

덕분에 1636 년 조선 통신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회답검쇄환사’라는 명칭의 주로 피로인 송환을 위한 사절들이 방문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정례화 되어 1811 년 순조 시기까지 총 9 번의 통신사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기나긴 임진왜란 전후 처리과정의 종결이기도 하였다.

결론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있어 대마도의 국서조작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듯 맞물리지 않던 상황에서 대마도의 국서조작이 훌륭한 명분이자 돌파구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마도의 매개적 역할은 해로교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왜구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일본의 합의

하에 주어진 것이었다. 대마도 또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인해 매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대마도의 국서조작은 일본과의 무력갈등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주었으며, 군자의 나라로서 오랑캐를 포용한다는 정신적 승리의 역할도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대마도의 국서조작은 대내적 경쟁을 거쳐 수립된 에도막부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내적 위신은 손상되지 않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즉, 대마도 국서조작 사건의 묵인은 대마도, 조선, 일본의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른 결과였다. 특히 조선과 일본은 서로가 천하질서에서의 순응과 탈피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졌음을 파악했음에도 조선의 경우 대외적 안정, 일본의 경우 대내적 안정이라는 실리를 위해 국교를 이어가기를 택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14.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에 길을 묻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6475>

20 (검색일: 2023.1.24)

동아일보. 2015. “쓰시마 명운 건 국서 위조 … 조선-日은 알고도 눈감아줬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51027/74421185/1> (검색일 : 2023.1.24).

민덕기. 2013.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41 호, 97-135.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김상준 역. 서울:동북아역사재단.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8 월호.

장순순. 2013.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호, 15-60.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 2023.1.23).

하우봉. 2013.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1 호, 215-250.

허경진. 2009.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43 집, 49-79.

홍성덕. 2013.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호, 137-180.

Lewis, James B. 2003. *Frontier contact between Choson Korea and Tokugawa Japan*. RoulledgeCurzon.

- McCune, George M. 1946. “The Exchange of Envoy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5, No.3.
- Tan, Isaac C.K. 2021. “Beyond Frontiers and Borderlands: A Reexamination of Tsushima’s/Taema-Do’s Geopolitical Position in Fifteenth 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6, No.1.
- Toby, Ronald P. 1991.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i Hongzhang's Psyche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Sino-Japanese Treaty Memorial Hall

Jongeun Seong

The University of Sydney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The Great Qing Empire's Perspectives on Li Hongzhang's Psyche
 - 2.1: Qing China's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Issued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in *Li Hongzhang quan ji* (李鴻章全集)
 - 2.2: Liang Qichao's Assessment of Li Hongzhang's Lifetime in
Li Hongzhang chuan (李鴻章傳)
3. Li Hongzhang's Psyche from the Eyes of Japan: the Innermost Ambitions of the Japanese Empire
 - 3.1: Bilateral Peace Summit Between Ito Hirobumi and Li Hongzhang
in Shimonoseki, Japan
 - 3.2: Mutsu Munemitsu's memoir of Li Hongzhang in *Kenkenroku* (蹇蹇錄)
4. Conclusion

I. Introduction

Albeit the Great Qing Empire's hegemony in East Asia started to diminish due to the Treaty of Nanjing in 1842, Qing China maintained its traditional tribute affiliation(朝贡关系) with its periphery states such as Joseon. However, from the 1870s, as an imperative step of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洋务运动), Qing China started to modernize its naval power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then Grand Secretary Li Hongzhang. Li Hongzhang sent several Chinese officers abroad to Europe and North America to adopt a more advanced military system in Qing China. In addition, Li Hongzhang formed the Beiyang Fleet, the Nanyang Fleet, and the Fujian Fleet in an effort to strengthen the naval powers of Qing China. Notwithstanding Li Hongzhang's execution of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for several decades, Qing China was devastated by Japan's meticulously modernized naval powers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As a matter of fact, Japan was fully prepared to utilize its westernized military capabil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Emperor Meiji, unlike the Qing imperial court's outmoded national defence strategy.

Until the early 2000s, Chinese academics did not progres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on the Sino-Japanese War because many Chinese people shamefully perceived the Great Qing Empire's defeat by

a mere “barbarian,” non-western state like Japan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ino-barbarian dichotomy(华夷之辨). Hence, scrutinizing the “psyche” of Li Hongzhang, a protagonist of the Sino-Japanese War, will be a meaningful attempt to figure out how the Sino-Japanese War changed the course of East Asia’s regional order in the late 1800s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st Asian region. Furthermore, successful analyses of a statesman’s “psyche” makes it possible to prospect the innermost intentions of states; for instance, by analyzing Chairman Kim Jong-un’s “psyche,”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are able to anticipate North Korea’s actual intentions in the U.S.-DPRK peace summits in Singapore and Hanoi.

This research paper will therefore delve into Li Hongzhang’s psych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Qing and the Japanese Empires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Since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a statesman’s psyche, a diverse range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paper.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paper will examine the Great Qing Empire’s perspectives on Li Hongzhang’s psyche by observing two primary sources: 1) the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that Qing China issued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in *Li Hongzhang quan ji* (李鸿章全集) and 2) a critical assessment of Li Hongzhang’s life, *Li Hongzhang*

chuan (李鴻章傳), which was written by Liang Qichao. The second part of this research paper will analyze the Japanese Empire's perspectives on Li Hongzhang's psyche and determine what Japan genuinely wanted to achieve at the time period. In order to do so, the then-Japanese Foreign Minister Mutsu Munemitsu's *Kenkenroku*(蹇蹇錄) and the dialogue between Ito Hirobumi and Li Hongzhang during the Shimonoseki Treaty will be scrutinized in detail.

2. The Great Qing Empire's Perspectives on Li Hongzhang's Psyche

2.1 Qing China's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Issued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in *Li Hongzhang quan ji* (李鴻章全集)

Li Hongzhang quan ji(李鴻章全集) is an invaluable primary source to analyze Li Hongzhang's psyche since it consists of Qing China's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confidential government documents, Li Hongzhang's diaries, letters exchanged between Li Hongzhang and the Guangxu Emperor, and Li Hongzhang's letters to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fter Qing China was defeated by the Japanese in the Battle of

Weihaiwei, the Qing Court reluctantly decided to send envoys to Japan for a peace summit. Qing's government document that was issued during the twenty-first year of the Guangxu Emperor's reign shows Li Hongzhang's feelings before he left Beijing for a bilateral summit with Japan. The document was called “恭谢天恩并陈交卸起程日期折,” meaning Li Hongzhang's gratitude towards the Guangxu Emperor and his report about the departure date to Japan. Li Hongzhang described that Japan demanded the Qing imperial court send one of the highest-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s a plenipotentiary(全权大使). Li Hongzhang added that the “behaviors of Japan are extremely rude, and it is likely that Japan is hiding something that they want.” Li Hongzhang also remarked that “it is entirely this servant(臣)'s fault to let his Imperial Majesty be concerned about this issue...However, I cannot hold back my tears for his Imperial Majesty's decision to entrust me with such a heavy responsibility(重任).” Based on the letter to the Guangxu Emperor, it is apparent that Li Hongzhang held himself accountable for Qing China's defeat in the Sino-Japanese War, and he bluntly showed his anxiety regarding the treaty with Japan. What caused Li Hongzhang's anxiety was that he was uncertain what the Japanese would demand Qing China to reimburse for the Sino-Japanese War and what it meant for the future of Qing China.

The then-Grand Councilor(军机大臣)'s letter to the Guangxu Emperor in the February of 1895 also shows Li Hongzhang's anxiety. The Grand Councilor wrote, "Since this servant(臣) cannot determine the current enemy's situations(敌情), we are in a state of emergency...I am worried that the Japanese(倭人) might provoke our soldiers and threaten Beijing. This servant(臣) is pretty sure that the Japanese will demand the cession of certain territories. If we do not allow a cession of certain territories, the Japanese will, of course, threaten our capital. Since it is important for us Qing to determine what the Japanese actually want, please allow Li Hongzhang to deal with a cession of Qing's territories as soon as possible."

The overall tone of both documents in *Li Hongzhang quan ji*(李鸿章全集) clearly shows that Li Hongzhang was extremely anxious about the future of Qing China because he was burdened with heavy responsibilities to negotiate with Japan. For instance, whenever Li Hongzhang sent a letter to the Guangxu Emperor, he constantly self-criticized by stating that it was his "fault" for letting the Emperor be concerned about diplomatic affairs. Furthermore, the Grand Councilor(军机大臣)'s letter to the Guangxu Emperor shows that Li Hongzhang was the one who was qualified, which makes Li Hongzhang more anxious about the potential results of the Sino-Japanese summit even before he left Beijing.

2.2 Liang Qichao's Assessment of Li Hongzhang's Lifetime in *Li Hongzhang chuan* (李鸿章传)

The author of *Li Hongzhang chuan*(李鸿章传), Liang Qichao, was the Republic of China's former Minister of Justice and Minister of Finance. Moreover, Liang Qichao was also well-known as a political opponent of Li Hongzhang, which makes *Li Hongzhang chuan*(李鸿章传) a significant primary source to objectively assess Li Hongzhang's psyche. Liang Qichao even stated in the beginning of *Li Hongzhang chuan*(李鸿章传) that he tried to write about Li Hongzhang's life as objectively as possible because "historians must have an unbiased mindset" although Li Hongzhang was his political opponent.

In the eighth chapter of *Li Hongzhang chuan*(李鸿章传), “第八章：外交家之李鸿章上,” when Li Hongzhang was coming back from the third round of summit with Japan, he was shot by a far-right terrorist named Koyama Toyotaro. Li Hongzhang almost lost his life as the bullet deeply penetrated his left cheekbone. Astounded by the attempted assassination, Japanese Prime Minister Ito Hirobumi and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Mutsu Munemitsu paid Li Hongzhang a visit to the hospital to console him. Japanese Emperor Meiji himself even sent court physicians and medical officers to assist with Li Hongzhang's treatment. The attempted assassination of Li Hongzhang bluntly showed the

sincerity of Li Hongzhang's patriotism towards Qing China. When a Japanese physician told Li Hongzhang that he must take a rest for a while after they got rid of the bullet, Li Hongzhang furiously answered: "When our nation is in grave danger, we cannot postpone our plans to achieve peace. How can I delay such a critical issue? I will not get rid of the bullet and would rather die!" On the following day, when someone saw Li Hongzhang's clothing stained with blood, he said, "this is blood shed for the country." With tears in his eyes, Li Hongzhang answered, "I can gladly die if my death benefits my motherland." Li Hongzhang's remarks show that his loyalty towards Qing China was sincere even at the edge of death, and that he was ready to risk his life for Qing's national interests.

3. Li Hongzhang's Psyche from the Eyes of Japan: the Innermost Ambitions of the Japanese Emp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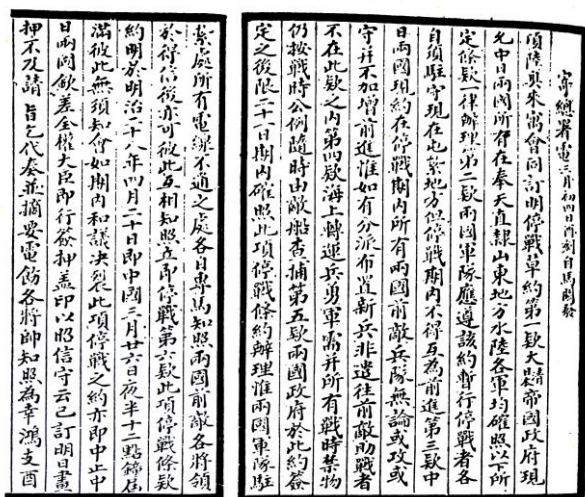
3.2 Bilateral Peace Summit Between Ito Hirobumi and Li Hongzhang in Shimonoseki, Japan

Before Japan and Qing China started their bilateral peace summit, Japan intentionally selected a sashimi restaurant to host the meeting. Inviting a

high-ranking statesman like Li Hongzhang to a sashimi restaurant for a bilateral summit was unconventional; however, Japan intentionally chose the place to humiliate Li Hongzhang. When Ito Hirobumi first met Li Hongzhang, he remarked that “this small town does not contain any building worthy of one of Your Excellency’s high rank. We are quite ashamed that we have nothing better to offer you.” Although Ito Hirobumi outwardly apologized to Li Hongzhang, he knew that Japan’s choice of a sashimi restaurant for a bilateral summit was against diplomatic etiquette. As Japan intended, Li Hongzhang might have felt shameful as a plenipotentiary from the Great Qing Empire.

Aside from Japan’s choice of a sashimi restaurant, Qing China and Japan had to have several rounds of summit discussions due to discordance in each other’s conditions for negotiation. Although Li Hongzhang constantly requested an armistice, Ito Hirobumi refused to withdraw the Japanese troops from Qing China’s provinces. Li Hongzhang pleaded, “As China and Japan are like brothers in the family of nations, the terms of the armistice are much too severe. Have you nothing better to offer?” Moreover, Li Hongzhang bluntly showed his embarrassed feelings during the peace negotiations. Li Hongzhang beseeched Ito Hirobumi, “I am Viceroy of the province of Chihli, and these places are my jurisdiction. My personal reputation is at stake. Let me ask, Count Ito, how you would feel under these embarrassing

circumstances?" Based on Li Hongzhang's statements, it is clear that he felt extremely embarrassed by Japan's occupation of Chinese provinces; Li Hongzhang continuously begged for Ito Hirobumi's sympathy, which



一八九五年李鴻章與日本首相依藤博文在日本
馬關春帆樓談判情況的電報底稿

even worsened Qing China's position in bilateral summit discussions.

Li Hongzhang's submissive attitude towards Ito Hirobumi is also shown in several parts of the bilateral discussion. For instance, when Ito Hirobumi told Li Hongzhang that he was born in Shimonoseki, Li Hongzhang repeatedly flattered that Shimonoseki "is a birthplace of famous men." Li Hongzhang's attitude shows how desperate he was to

achieve armistice with the Japanese; however, Ito Hirobumi did not give an inch and refused to withdraw Japanese troops for Japan's imperialistic desires.

3.2 Mutsu Munemitsu's Memoir of Li Hongzhang in *Kenkenroku* (蹇蹇錄)

During the Shimonoseki Treaty, Japanese Foreign Minister Mutsu Munemitsu was the one who accompanied Japanese Prime Minister Ito Hirobumi. Throughout the Sino-Japanese War, Mutsu Munemitsu wrote a memoir of his diplomatic experience, which is called *Kenkenroku* (蹇蹇錄). Although *Kenkenroku* (蹇蹇錄) might be relatively biased, it still remains a meaningful primary source to assess Li Hongzhang's psyche from the eyes of the Japanese empire. Mutsu Munemitsu reminisced that Li Hongzhang was self-critical when he requested for an armistice with Japan. Li Hongzhang remarked that Qing China could not achieve reformation due to his incompetence, but he praised Ito Hirobumi's successful reformation projects. Li Hongzhang added that many Chinese people were grateful for Japan's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because it proves that the "yellow people" can do as good as "white people." However, Mutsu Munemitsu assessed that Li Hongzhang's such comments sounded pathetic. Mutsu

Munemitsu stated, "The old man's effort to hide his embarrassment and to arouse Japan's sympathy was adorable." After the third round of summit discussions when Li Hongzhang was shot by Koyama Toyotaro, Japanese Emperor Meiji eventually allowed an armistice with Qing China. Mutsu Munemitsu reminisced that Li Hongzhang's face was wrapped with bandage but he expressed his sincere gratitude with his eyes. Based on Mutsu Munemitsu's memoir, Li Hongzhang seemed like a shameless, flattering person. However, it might have been Li Hongzhang's strategy to achieve Qing's armistice with the Japanese as soon as possible despite his embarrassment.

4. Conclusion

In conclusion, explaining Li Hongzhang's psych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a single word is difficult. Nonetheless, based on Li Hongzhang quan ji(李鴻章全集) and Liang Qichao's Li Hongzhang chuan(李鴻章傳), Qing's perspectives on Li Hongzhang's psyche is that he was truly loyal to his motherland even at the edge of death. On the contrary, based on the bilateral peace summit record and Mutsu Munemitsu's Kenkenroku(蹇蹇錄), Japan's perspective on Li Hongzhang's psyche was that he was a cunning person who tried to

arouse sympathy from Japan. Further scrutiny is required to understand what Japan truly wanted to gain from the Shimonoseki Treaty. Hence, it can be speculated that Japan's intention was to propagandize to the western world the fall of the Great Qing Empire and the rise of the new hegemon in East Asia.

Bibliography

- Chang, Sheue-Chih. 1989. "A Study of Li Hong-Chang's Foreign Policy During,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Seunghwan.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China and Japan During the First Sino-Japanese War: Focus on the Geopolitical Perceptions of Li Hong-Zhang and Yamagata Aritomo" Seoul: Korea University Library
- The Tientsin Press. 1895. "Verbal Discussion During Peace Negotiation Between the Chinese Plenipotentiary Viceroy Li Hung-Chang and the Japanese Plenipotentiaries Count Ito and Viscount Mutsu at Shimonoseki, Japan." The Peking and Tientsin Times.

김기효. 2017.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 XIV: 중국편. 도서출판
선인.

무쓰 무네미쓰. 1993. 건건록. 김창수 역. 범우사

양계초. 2013. 리홍장 평전. 박희성, 문세나 역. 프리스마.

梁启超. 2011. 李文忠公事略. 中国古典精华文库.

인공지능 시대 인태지역 질서 전망 _규슈 국립박물관

이에린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세적인 정책들의 여파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과연 이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 빠르고 예리하게 읽어내야만 하는 현실이 흡사 격변하던 세계 질서 앞 우왕좌왕하던 구한말 때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새롭게 불어 닥친 바람이라기보다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의 pivot to Asia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급진적이라 여겨질 만큼 상호 공세적인 행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내어 들었다는 신호이다.

인공지능 경쟁

무역에서 시작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이제 첨단기술과 기술 표준 선점이라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경쟁과 대치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데에는 재고가 필요할지 모른다. 흔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의 경쟁 양상을 두고 이전의 미소 냉전 구도를 떠올리지만, 인공지능 분야는 성격과 양상 측면에서 이전의 그 어떤 경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구도의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의 기술들은 대부분 국가의 기밀이었고 때문에 각국이 기술을 독점했었던 반면, 인공지능은 널리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용 기술'이며, 전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인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기술들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구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소 냉전 시기의 핵무기 개발이나 우주 경쟁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킴에도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 둘 수 없게 된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결승선이 없고, 달려야 하는 길도 뚜렷하지 않으며, 그 길은 대체로 명확하지 않고 서로 중첩되기 때문이다(Christine Fox,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며 서로 간 대치 국면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술 전반과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두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국면을 맞이한 지금,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글로벌 패권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다. 혁명적인 기술적 변화는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정부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Allen and Chan, 2017).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연구, 투자, 사업 등을 통틀어 중국의 ‘스푸트니크 모먼트(sputnik moment)’라고 칭하기도 한다(Lee Kai Fu, 2018).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기가 인공지능과 기술 전반에 있어 변곡점에 있음을 자각한다¹. 그러나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보며 다소 뒤늦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지원과 지도를 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현재 미국이 인공지능 혁명이 사회, 경제, 국가 안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안보, 번영, 민주적 가치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혁명을 봐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NSCAI, 2021). 앞으로 미중의 인공지능 및 기술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국이 이 경쟁에 어떻게 돌입하고 있으며 경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제정치 지형이

¹ Robert Work,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eported at the Reagan Defense forum.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국제정치가 제공하는 선택지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경쟁의 대응

미국의 decoupling 시도

미국은 현재 탈냉전 시대가 분명히 끝났고 다음에 올 것을 형성하기 위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진행중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NSS, 2022). 또한 인공지능의 어렴풋한 영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역사에서 중대한 결정 시점에 접근하고 있는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미국을 유지하는 데에 들인 여러 노력을 되새기고 이를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신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현재 미국이 자신 있게 앞서 나가거나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반도체 등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들을 기술 전쟁이라 할 때, 이는 무역 전쟁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면서도 더 광범위한 대상이 주체가 되어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정책적 개입이나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등의 흐름의 통제와 같이 여타 경쟁의 국면과 비슷한 경쟁의 수단을 사용하지만, 무역 전쟁 등은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잘 조직된 어떠한 주체에 의해 동인되는 반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민관 등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정치적 어젠다를 지닌 조직화된 주체들 뿐만 아니라 산업과 학술 영역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의식 수준까지를 아우른다고 간주할 수 있겠다.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기술 경쟁,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기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제와 함께,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가파른 강세에 비해 미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미국 내 대중국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해 초래된 국내정치적 이유이다. 먼저 기술 관련 여러 지표에서 미국의 약세와 중국의 강세의 두드러짐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지표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특허, 데이터, 인재, R&D 수준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인공지능의 주요한 하위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에서는 중국이 6배 정도 더 많은 특허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특허 출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공지능의 주요 자산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중국 사회는 이미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서 개인이 일상에서 양산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아주 높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압도적인 수의 내국인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일관된 양질의 데이터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석유와도 같다. 인재 측면에서도, 중국의 STEM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학사 졸업자는 미국보다 4배나 더 많고, 박사 졸업자는 2배정도 더 많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 대회에서도 중국 팀은 1위를 포함하여 상위권을 다수 장악하고 있다(Belfer, 2021). 또한, R&D 수준에서도 중국은 점차 강세를 띠는 반면 미국 수준은 지속적으로 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양자 과학, 생명 공학 기술, 그린 에너지 기술 등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자 정보 과학 분야(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감지 등)에서 중국의 양자 통신은 미국을 능가하였으며, 그린 에너지 기술에서도 지난 20년간의 주요 발명가였던 미국을 제치고 독점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생명 공학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속도로 여러 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중국을 두고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과학기술 헤게몬이 아니라는 의견이 응집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정치적 이유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른바 ‘China Shock’으로 불리는 중국발 무역충격으로 미국의 경제가 큰 손상을 입었다는 데에 국민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Autor et al., 2016). 특히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손실 등을

두드러지게 경험한 곳으로, 경제 문제가 정치와 이념 문제로 양극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중국으로 인한 무역 충격 등의 원인으로 미국은 국내적으로 지역 간 큰 편차,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심각한 갈등의 봉합을 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겨룰 만큼 크게 성장한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비대칭성이 심각해져 중국에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미국 전체가 적어도 경제, 기술 등의 방면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손상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겠다는 데에 대한 합의로 확대된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궤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은 경제 및 안보에서 중국이 이제 ‘완전한 경쟁 상대’가 되었음을 시인하고(Eric Schmidt, 2021),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추격을 늦추기 위한 결론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미국을 앞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하다(NSCAI, 2021). 인공지능이라는 신흥 기술이 경제, 군사, 안보 등 사회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제나 군사 측면에서도 버거운 경쟁이 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셈법으로 미국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현재 글로벌 가치 망에서

단기적으로는 자국에 피해가 있더라도, 리쇼어링과 자국 기술 발전에의 심기일전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의 의존도와 취약성을 줄이고 현재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decouple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바이오 기술 분야 등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제조, 인력 등에 크게 기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고려하는 모습도 확인해볼 수 있다(Rob Carlson, Rik Wehbring, 2020).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 분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천인계획과 같은 중국 정부의 미국 학계 침투 노력이 기만, 절도, 강압, 보상과 다름없다는 위협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내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Rory Truex, 2020).

기술의 변화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다. 미국은 현대적이고 핵 능력까지 갖춘 중국 및 러시아를 동시에 억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부상하는 중국을 막고 세계 1위를 굳건히 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하지 않은 여정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로 인해 발발한 고조된 지정학적 경쟁 등의 안보 위협까지 억지해야 하는 복합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22). 이 두 국가가 신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는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 국방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겠다는 선언쪽으로는 변화가 포착된다(NSCAI, 2021). 미국의 국방 문제에서의 주요 이슈는 이제 9.11 테러 이후 중동에서의 대테러 작전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논의로 그 중요성이 옮겨졌다. 이른바 강대국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GPC)로 안보 핵심이 변화하면서 지정학과 대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Global Posture Review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이 우선순위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유민주적 가치를 필두로 여러 자원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AUKUS, Quad와 같은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사 영역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의 확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DOD News, 2021).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집결시키는 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DOD, 2022).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미국 편에 제대로 정렬되라는 ‘미국의 재세계화’의 한 부분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의 Quad 동맹체제 편입 요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 사이에서 곤란함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산 5G 장비 사용 금지 요구로 화웨이

사태 등 전세계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근에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 사용 금지, 핵심 기술 공장 이전 등의 요구 모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도이자 미국식 재세계화의 단편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도 재세계화의 일부로 간주해볼 수 있겠다. 현 세계 패권국이자 화폐 발행국으로서 갖는 압도적인 무기인데, 극심한 국가 부채 수준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단기적인 인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점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싸움임을 암시한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국의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GVC를 재편하고, 핵심 기술 공장 등을 중국에서 이전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질서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의 2022년 10월 국가 안보 전략(NDS)를 참고해볼 때 중국과의 갈등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언급하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내용이 담기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과의 갈등을 피한다거나 대중 공세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당장은 전략 경쟁을 관리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지 않기 위해 완급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이 단순 1-2년의 단기간의 계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플랜으로 움직일 것임을 감안할 때, 대중 공세 전략 자체는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대응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굴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꿈’과 두 개의 100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2012년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은 주요 계기 때마다 ‘중국의 꿈(중국몽)’을 천명해왔는데 그 요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물론 중국 내에서의 ‘중국몽’에 대한 논의는 시진핑 시기부터 새롭게 떠오른 것은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미 후진타오 시기에도 존재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중국의 꿈’이 중국공산당에 제기된 당에 대한 의문을 지우고, 그 정당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 등과 더불어 이제는 그 개념이 확장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홍건식, 2018). 단순히 자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도, 문화, 기술 등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 전세계적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자신감을 과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의 ‘중국몽’은 대내적 의미와 더불어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띠는 대전략 차원의 개념이다.

요컨대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는 ‘중국몽’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발전, 샤오캉 사회 건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완수에 대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그동안 중화민족이 겪은 좌절과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금 위대한 부흥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로드맵으로 두 개의 100년이 있는데, 첫 번째 100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을 뜻하며 두 번째 100년은 신중국 건국이 100년째 되는 2049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개의 백년이 완성되는 2049년에 비로소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대국의 지위 회복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은 대략 3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아왔는데², 시진핑이 2049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안의 30년 기간은 ‘중국의 꿈’으로 응축된 대전략을 향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투입해가며 여러 가치를 실행하는 테스트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즉, 2049년까지 약 25년 동안의 기간을 견인할 동력으로써 중국은 기술을 필두로 한 ‘혁신 주도형 성장’을 강조한다. ‘혁신 주도형 성장’이란 전통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² 첫 번째(1921-1949)는 당 창립 후 혁명과 건국을 위한 투쟁 시기, 두 번째(1949-1978)는 마오쩌쭈식 사회주의 이상 시도와 실패, 세 번째 (1979-2012)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추진으로 볼 수 있다(김영진 외, 2013).

의미하는데, 이전의 고속 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4차 산업혁명을 구심점 삼아 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 초고속 성장 시대와 달라진 현재 시대를 새로운 정상상태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이전 양적 성장 중시에서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로의 진입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현재를 새로운 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여전히 고속 성장이 필요한 중국의 경제 구조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 초고속 성장에 강력한 통치의 정당성을 두었던 당국이 이를 지속 할만한 새로운 논리로써 ‘신창타이’ 개념을 도입하고 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사활을 걸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존의 성장을 지속하여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국에는 2049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보조하는 데에 제조업 분야가 핵심임을 인식하고 ‘중국제조2025’를 필두로 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제조 강국에 비해 상대적 열세였던 중국은 지난 산업혁명 기회들을 놓친 시간을 만회하고자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신기술 분야를 역전의 기회로 인식한다. 즉,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13차, 14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5)의 발전 전략이다³. 이 모든 목표는 기존의 산업발전 정책과 다른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및 자동화 공작 기계 등의 핵심기술에서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중국 중심의 GVC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중국제조 2025’ 이후 제시되는 수많은 각종 업종별 후속 조치들 또한 기술 발전의 요인을 발굴하고 유니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명확한 단계별 목표 및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하위 구성요소들의 일사불란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방역 현장에 접목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차세대 정보 기술 지원 감염병 방역 및 업무 복귀 서비스에 관한 통지’ 등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적용해 감염병 확산을 관리하는 것을 정책화한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을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과 질병 진단 및 백신 개발에 사용함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하고 거리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자동으로 발열인

³ 중국 국무원은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9 대 목표와 함께 10 대 전략산업육성과 5 대 중점 프로젝트를 정하고, 발전 전략을 3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 단계인 2015-2025 에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2 단계인 2025-2035 에는 글로벌 제조 강국 중간 수준에 도달하며, 3 단계인 2035-2045 에는 제조업 분야 제 1 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불여 2025 년까지 10 대 전략 산업에서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된다.

정보 연동을 하는 안면인식 등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의 인민해방군(PLA)는 재래식 병력 확장은 물론, 공간, 대공간, 사이버, 전자 및 정보전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통합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해외 및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노력과 동시에 핵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시도도 가속하고 있다. 이 때 인공지능은 중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우위를 넘기 위한 경로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PLA)는 인공지능 관련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 관련 연구 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Horowitz, 2018).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러한 시도들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미국의 동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서진 전략이다.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는 육지와 해상, 그리고 우주와 디지털 분야를 잇는 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남아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건설,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 통신 인프라, 국가 간 물류 운반 시설 확충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DSR)’⁴를 결합시켜 인공지능 기술, 통신 기술 등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전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체 역량이 부족한 앙골라, 짐바위, 우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국가 전역에 안면인식 카메라 설치와 같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정부 차원의 정치적 통제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리며 중국의 기술 인프라 보급과 표준 확산은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인프라 제공을 조건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내고 있기도 하다. 파키스탄의 함반토타항과 과다르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구,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예멘과 아덴항 등이 해당된다. 동시에, 일대일로 벨트와 중국산 무기 수출 위치가 상당히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1980년대와 비교해 현재 2배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2013-2017년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국방과 기술」, 2018). 이는 남중국해 해양 패권 쟁취 및 해양 패권국 달성을 위한 해외군사기지 건설과 에너지 확보의 노력인 것이다.

⁴ 디지털 실크로드(DSR)는 1 단계에서 통신 기반시설 구축, 2 단계에서 위치정보시스템(배이더우), 양자컴퓨팅 협업, AI, 그리고 3 단계에서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요컨대, 위의 시도들 모두 미국의 제해권이 미치지 않는 자원 수입 경로 및 정치적 세력 규합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인접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로 편입하기를 주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시도다. 최근 동남아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두고 동남아에서 세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Graham Allison, 2020).

인공지능 시대 유력한 국제질서 시나리오 디커플링 또는 협력

무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중국 간 몇 십년 간의 긴 역사의 상호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기술 분야, 공급망, 시장 등 곳곳에서 발견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양자간 정치적 불신 등이 쌓여 이전으로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을 이루고, 시장을 양분하게 된다면 세계는 국가적 표준 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여러 기술의 상호운용이나 호환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하던 국가들이 누리던 혁신과 비용 감소 등의 혜택도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국가의

경쟁이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를 낳으며 기술 전 영역에 걸쳐 무수한 싸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Paul Triolo, 2020).

한편 중국을 능력과 기여 가능성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중국이 인공지능 그물망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며, 인공지능의 성격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이기 때문이며, 새롭게 시작된 분야로 아직 미지의 것이 많은 기술이기 때문이다(Christine Fox, 2020). 먼저 중국과의 협업이나 교환 등에서 아예 발을 빼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기존 무역과 안보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세상의 중요한 부분, 큰 면적에서 아예 발을 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긴밀한 네트워크 안에서, 개방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며 중국이 주는 이익을 누리고 신흥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해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한다(Remco Zwetsloot, 2020). 중국인 유학생 등을 막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신흥 분야에서 국제적 협업을 통한 거대한 지적 유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미 vs 중의 결과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지식이 풍부한, 오히려 범람하는 시대이다. 단순 지식의 양이 국력의 요소가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의미이다. 물론 인공지능 자체의 발전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특색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물질 요소로는 데이터, 인공지능에 필요한 칩 등이 있으며, 무형 요소로는 기초 연구, 응용 능력, 신뢰도 등이 있다. 이 중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는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 필요한 석유에 빗대어 이해되는데,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막대한 인구가 쏟아내는 데이터 양을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Lee Kai Fu, 2018). 또한 응용 분야에서도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상업화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인구와 내수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베끼는 것에서 나아가 중국인 유저들에 알맞게 최적화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여러 상업화 시도를 하는 이유 중에 중국 내 존재하는 수많은 이윤에 목마른 스타트업(profit-hungry startups)들, 즉 궁극적 목표가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 미국이 순수한 혁신 정신에 기반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베끼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오직 시장에 맞춤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발견의 시대’가 끝나고 발견한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행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은 자국이 나아가 기초연구와 혁신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다(Lee Kai Fu,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가오는 시대를 조망해볼 때, 최근 공개된 Chat GPT만 보더라도 힘들이지 않고 몇 번의 타이핑만으로도 대부분의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때이다. 따라서 양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전의 공식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앞으로의 지식이 풍부하다 못해 포화상태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승부수는 창의성일텐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적 특색’과는 사뭇 결이 달라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대다수 이윤이 고픈 스타트업들이 피상적인 적용일 뿐이며, 단순한 응용과 실행만 끝없이 찍어내는 것으로 보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Christine Fox, 2020). 인공지능과 연관된 근본적인 혁신들은 기초 연구·개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생성, 전략 게임, 언어 이해와 생성 등은 피상적인 적용이나 도구적 시행이 아닌 기초 연구에서 파생된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국경 내에 가뒀을 수 없는 기술이다. 창의성과 개방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지배하는 이 시대와 중국이 궁극적으로 align되기 힘든 이유이다. 오늘날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식 발전 경로, 중국 특색, 중국 고유의 가치 등이 권위주의 국가나 유교문화 담론이 통하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사회 체제, 이념, 사회 분위기, 정치적 민주화, 지적 능력, 문화 등의 무형자산이

사회를 이끄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에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국이 형성하려는 네트워크의 참여국들에 공공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인프라 건설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고금리의 구속성 원조는 참여국들의 위기 상황을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일대일로 참여국들 중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그 자체가 일단 불안정한 국가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참여국 재정이 이미 열악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일대일로 차관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이 긴급 구제금융 신청을 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체력이 부실한 많은 국가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 때 참여국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 및 능력이 중국식 네트워크 유지에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장기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이러한 능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 자국의 국가 부채 등조차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면 일대일로로 구축한 중국식 네트워크 내의 국가들을 관리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체제는 단기간 형성된 것이 아니다. 양차 대전과 냉전기 및 그 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국의 네트워크로 포섭한 국가들에 공공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관리 및 해결, 불만족도 조절과 같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굳혀진 것이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이동과 속도가 더욱 빨라진 시대에서 미국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리비용 부담의 의지와 능력이 필수적임은 자명하다.

나가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이전 전통적 국제정치 경쟁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동인기술이자 범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재구성되는 국제정치 현실, 미국이 짜 나가려고 하는 미국식 재세계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이 충돌의 여파가 극심한 인태지역 국가들이 전략적 태세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인공지능 기술이 본질상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의 특성이 이와 정렬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만리방화벽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고집하는 중국의 경우 쉽지 않은 경쟁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양으로 승부하려는 중국의 이전 공식 또한 들어맞기 어렵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관리 비용 부담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진 외. “중국·정치·경제·사회·문화 전문가 12인의 차이나 리포트”
한숲. 2013

“제인스, 세계방산 시장의 ‘Made in China’ 위협론 강조.” 『국방과
기술』 2018. 제 476 호.

Carlson, Rob and Rik Wehbring, 2020. “Two Worlds, Two
Bioeconomies: The Impacts of Decoupling US-China Trade
and Technology Transfer.” *National Security Report*.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Daniel P. Huttenlocher, Eric Schmidt, and Henry Kissinger. 2020.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

-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27.2022.
- Fox, Christine. 2020. “An Entwined AI Future: Resistance Is Futile.” *National Security Report*.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 Graham Allison. “The New Spheres of Influence.” *Foreign Affairs*. 2020. 3-4.<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2-10/new-spheres-influence> .
- “Why American Strategy Fails.” *Foreign Affairs*. 2020. 10. 28.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10-28/why-american-strategy-fails> (검색일 2022.12.11.)
- Greg Allen, Taniel Chan,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Belfer Center Study*.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 Horowitz, Michael.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Balance of Power.”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1:3
- Lee, Kai-Fu, 2018. *AI Superpowers*.
- NSAIC, 2021.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 Triolo, Paul. 2020.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US-China Context: Evolving toward Near Complete Bifurcation." *National Security Report*.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 Truex, Rory. 2020. "Addressing the China Challenge for American Universities." *National Security Report*.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 Zwetsloot, Remco. 2020. "US-China STEM Talent "Decoupling": Background, Policy, and Impact." *National Security Report*.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